

정책 2018-02

2018 평등한 연구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부평구문화재단

BYUNGGYE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목차

2018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7
2. 연구 목적과 비전	8
3. 연구 범위	9
4. 연구 방법	10

II. 선행 연구

1.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정책	13
2. 여성공동체 개념	30

III. 부평구 여성 및 정책 현황

1. 여성 일반 현황	39
2. 부평구 정책 현황	54

IV. 부평 여성공동체 심층 면접

1. 조사 개요	71
2. 여성공동체 현황	78
3. 여성공동체 구축과 지속을 위한 전략	90

V. 요약 및 정책 제안

1. 연구 요약	139
2. 정책적 함의	144
3. 정책 제안	149

참고문헌	153
------------	-----

Chapter I

2018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비전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문화다양성은 ‘다문화’에서 진보한 개념으로 다문화가 ‘공간 내 공존’으로 소수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요소가 강했음. 반면 ‘문화다양성’은 ‘상생적 연대성 제고’로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내면서 공존을 모색한다는 측면이 강함(류정아, 2017).
-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차이’, ‘농어촌과 도시 문화의 격차’, 다양한 소수자문화와 주류문화의 갈등 등 사회적인 문화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임.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인종, 성별, 연령, 성적지향, 신체, 거주 지역 등의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비주류문화, 틈새문화 등 소외된 예술가들의 예술적 표현도 문화다양성에 포함됨.
- 부평구는 여성이 많은 도시(50.3%)이며 여성 1인 가구, 여성가구주, 여성 노인,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부평구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펼쳐 왔음.
- 여성들은 가정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다양한 활동들-자원 봉사, 마을공동체, 마을잔치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존재이나 그 대표성은 인정받지 못해왔던 역사가 존재함. 이주여성들 역시 주민으로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며 정착중임에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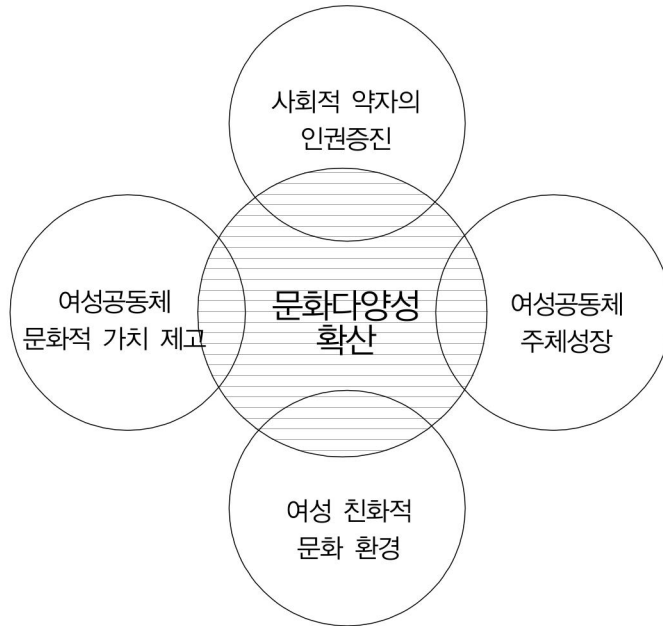
동이 존재함.

- 기존의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들은 복지적 관점을 통해서 지원정책방향들이 정해진 경향이 있고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 활동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실체적 접근 방식의 정책들은 찾아보기 어려움.
-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여성공동체들이 형성해내는 특성을 연구하고 이러한 문화들이 부평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문화다양성과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는 지 분석하고자 함. 또한 이렇게 형성된 문화들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사회 환류를 위해 공동체 지속을 위한 지원방안, 정책 등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목적과 비전

- 부평지역 여성공동체 사례조사를 통해 그들이 형성 및 생산하는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함.
- 여성문화공동체의 다양한 문화들이 지역공동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성과와 한계를 밝혀 성과는 반영하고 한계는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여성문화공동체 활동 및 공동체 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을 모색함.
-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여성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제고, 여성 친화적 문화 환경, 여성공동체의 주체 성장을 통하여 문화다양성 확산이란 비전을 가지고 있음.

【그림 1-1】 연구 비전



3.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시간적 범위 : 2018년 8월 14일~ 12월 13일
- 내용적 범위
 - 문화다양성, 여성, 공동체와 관련한 선행연구조사를 통한 개념정의
 - 부평지역 통계 및 여성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 현황(지역 및 대상의 특성포함)정리
 - 여성문화공동체 현장 및 여성공동체문화 사례조사 및 분석
 - 여성공동체 사례 조사를 통한 의제 발굴 및 현장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제안

4. 연구 방법

- 문화다양성 내의 여성공동체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
 - 문화다양성 내 다양한 범주 중 여성공동체 조사의 필요성 제시
- 부평지역 여성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특성 분석
 - 부평지역 여성정책과 통계
-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조사
 - 장애여성, 한부모 여성, 이주여성, 여성노동자, 여성노인, 지역학부모, 문예모임 등의 다양한 여성공동체들의 활동범위, 문화접촉면, 이들 문화들의 사회적 의미 등을 면대면 면접을 통해 조사하고 시사점 분석과 의제 발굴
- 부평 여성공동체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 한 지원방안 모색

Chapter II

2018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연구

선행 연구

1.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정책
2. 여성공동체 개념

II. 선행 연구

1.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정책¹⁾

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배경

- 문화다양성 개념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 됨. 이전에는 1946년의 세계 인권선언, 1992년 소수자권리에 관한 선언,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언 등이 있었고, 2003년에 유엔에서 최초로 문화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의제가 발의되어 2005년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 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제정됨.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 다양성 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이주민들과 관련된 인종이나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성별, 종교, 언어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임. 문화다양성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문화, 문화와 문화의 더 나은 관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임.
- 문화다양성에서 ‘다양성’은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며,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휴머니즘 차원의 개념을 의미함.
-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하는

1) 류정아, 2017, “문화다양성 개념과 도시 정책적 함의”, World & Cities Vol.11

개념임. 즉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 그 자체가 자원이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임.

-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 및 다수자 간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문화다양성 정책의 목표

- 문화다양성은 문화와 문화 단위 사이 관계의 문제로 환원되지만, 문화다양성은 국민국가 간 혹은 인종 집단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내부, 특정 사회의 ‘내부’의 문제이기도 함. 문화다양성이 국민국가 간 인종집단 간의 문제 틀로 환원되는 순간 문화다양성 논의는 온정주의적 태도와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짐(노명우; 2013).
-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의 목표는 ‘기본적인 인권, 문화민주주의의 증진, 모든 소수자들(민족, 젠더, 언어, 인종, 성 정체성에 따른)의 동등한 참여에 초점’²⁾을 맞춘.
-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집단의 관계의 틀이 아니라 한 사회 속의 개인의 문화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문화다양성은 온화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용 제고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문화정책의 과제로 자리잡을 수 있음. 이러한 접근 하에서만 한 지역과 사회에 사는 모든 개인의 문화적 권리가 국적과 인종을 떠나서 보호되는 정책이 가능하고 나아가 문화다양성은 ‘지역문화의 창달’³⁾이라는 또 다른 목적과 결합하게 됨.

2) 니나 오블젠.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8. 112.(노명우. 2013. 재인용)

3) 문화현장. “7.(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문화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체성과 활력의 원천이다.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자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자원들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내용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종류

-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채택을 기점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 시작됨.
- 2005년 33차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채택함.

○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상품의 완전한 개방에 있어 ‘문화적 예외’를 국제적으로 합의함. WTO 출범 이후 문화가 자유주의 시장개방의 주요대상으로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자 각국의 문화주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당사국들이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확인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함.

○ 협약의 특성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인류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음. 본 협약은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가 표출되는 다양한 방식으로써 전승된 방식 외에도 각 집단과 사회의 예술적 감수성에 유통되는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표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문화적 표현방식은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집단과 사회 내부에서 전승되는 인류 본질적인 특성으로 봄.

2)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 2010년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문화다양성협약’ 비준서를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하여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됨.

- 2014년 국제적 기준을 국내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화다양성법」을 의결함.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려고 함.
- 이 법의 목적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에 있음.
-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문화차이’, ‘다문화 이주민 · 노인 · 장애인 · 청소년 · 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법」은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수립 · 시행,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내 문화다양성법의 비교

구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국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공통점	-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 - 문화다양성은 인류공동 유산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함	
시기	2005년	2014년
배경	자유주의 시장개방에서 문화가 자유주의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되는 문화주권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	이주민 증가, 개방형 통상국가 등 한국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문화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
목적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증진하고 문화가 번영하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
지향점	당사국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	‘문화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1쪽

3) 문화다양성 정책의 패러다임-다문화정책과의 비교

-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과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문화다양성은 사회적 약자, 비주류 문화 등을 정책대상에 포함함.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추진한 정부정책이며,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귀화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문화 정책은 특정 집단 및 현존하는 다수의 문화를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문화다양성은 모든 사람, 집단 및 모든 문화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국내에서 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심이 필요한 계층은 물론,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예술이나 다원예술 등의 비주류문화도 정책의 대상으로 함. 문화다양성은 다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관점이 됨.
-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법」 외에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등에서 문화다양성을 국가와 지역자치단체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삼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장을 국가만이 아닌 개인의 책무로도 규정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은 특정 계층에 대한 소수자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문화권확대를 위한 일반적인 국가정책으로 변해야 함. ‘세계 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함으로써 인권의 내용에 문화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 밝힘. 여기서 문화적 권리란 “문화예술 생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용자의 권리도 포함.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즉 문화적 권리란 인권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1966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14차 총회에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 1968년에 개최된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는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이 성명은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에 이어 문화적 권리가 인류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유네스코는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적 권리는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개념임을 지적함.
- 다양할수록 좋다는 실용적 맥락에서 이해된 문화다양성, 이러한 개념의 문화다양성과 결합한 다문화주의는 왜 다양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략한 채 다양할수록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뿌리를 둠. 이러한 기대는 다양함을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온정과 결합할 때 정책으로서 발휘할 힘을 상실함.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인권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제대로 된 정책발휘가 가능함.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 정책 용어로서는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정책 용어로서의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 문화적 권리의 차원과 결합되지 못한 채 때로 온정주의적 정책의 이념을

제공하는 용어로, 때로는 문화동화주의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한계가 있음(노명우·최혜자, 2013).

【표 2-2】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의 비교

구분	다문화정책	문화다양성정책
정책대상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	문화소수자(외국인, 다문화가족, 노인, 장애인, 여성 등)와 비주류문화(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예술이나 다원예술 등)
		지역, 성별, 세대, 종교, 장애, 전통, 언어, 외모, 가족문화, 예술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정책특성	이주민의 사회통합 및 적응 지원	국내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인정 및 다양성 가치 부각을 통한 사회발전 원동력 제고, 사회통합
	문화 간 공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문화, 문화와 문화의 더 나은 관계 창출 ⇨ 새로운 문화의 창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2쪽

라.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환경 및 정책현황

1) 추진환경

- 우리나라에는 문화다양성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존재함. 다문화이주민과 관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2012년 39.4%에서 2015년 55%로 증가하였고 긍정적 반응이 2012년 26.2%에서 2015년 12%로 감소하였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국민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고 다음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 결혼 이민자,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남이라고 느끼거나 남과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이 2012년 28.%에서 2015년 32.9%로 증가함. 성차별 문제는 ‘2015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성 격차지수’가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임. 이코노미스트지가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조

사하여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도 39개국 중 39위로 OECD 최하위를 나타냄. ‘여성이 일하기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을 씀. 장애인 차별 정도 역시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획일화 현상을 불러오고 이는 고유문화나 전통문화 소멸위기를 불러오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요소임.

- 문화다양성 지표조사는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 진단을 위한 지표조사를 통해 대상, 지역, 연령 등 다양한 범주별로 문화다양성 구현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영역별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여기에는 ‘정책지수’, ‘인식지수’, ‘여건지수’, ‘활동지수’ 등이 포함됨. 정책지수에서 지방문화와 전통문화가 높게, 소수자나 비주류문화는 낮게 나옴. 여건지수에서는 물적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활동단체, 자원인력과 같은 인적자원은 미흡함. 활동지수에서는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의 5개 지표 중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옴. 인식지수에서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활동에 대해 관념적으로는 긍정적·우호적이지만 이해관계가 얹히게 되면 부정적·배타적인 태도를 보임. 이들을 종합한 문화다양성지수를 보면 정책지수와 여건지수가 낮게 나오고 평균 전체지표는 100점 단위로 환산해보면 36.15점이 나옴.

2)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은 ①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② 소수문화의 영향력 증대, ③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④ 문화다양성 관련 조사 연구, ⑤ 문화다양성 교육, ⑥ 국제교류협력 등 총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함.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했고, 그 중 소수문화 영향력 증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음. 소수자 대상별로는 장애인 대상 사업이 다수를 이룸.

【표 2-3】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현황

연번	정부 부처	분류별 사업 수							문화 다양성 사업예산 (백만원)	부처예산규모 *(백만원)	전체 예산 대비 문화 다양성 사업 예산 (%)
		① 가치 확산	② 소수 문화의 영향력 증대	③ 정책 추진 체계 구축	④ 조사 연구	⑤ 교육	⑥ 국제 교류 협력	계			
1	문화체육관광부	13	65	6	1	15	21	121 (중복14)	544,537	4,995,891	10.90
2	교육부			1		6		7 (중복1)	22,694	53,353,800	0.04
3	법무부	1	1					2	413	2,885,181	0.01
4	농림축산식품부	1	1					2	2,666	14,431,000	0.02
5	고용노동부	1						1	595	15,511,000	**0.00
6	여성가족부		1				1	2	5,619	656,709	0.86
계		16	68	7	1	21	22	135 (중복15)	625,805	91,833,581	0.6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7쪽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도 소수문화의 영향력 증대 유형이 가장 많이 추진됨. 이를 정책 대상별로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전통 문화 및 지방문화 증진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소수자 대상별로는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대상 사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여성 및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적게 나타남.
- 인천의 경우 정책의 숫자로는 13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5위를, 예산으로는 하위 4위를 보이고 있음. 정책내용을 보면 총 3개 유형으로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소수 문화의 영향력 증대와 가치 확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가치 확산에 11개 사업이 국제교류협력에 1개의 사업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현황

연 번	정부 부처	분류별 사업 수							문화 다양성 사업예산 (백만원)	부처예산규모 *(백만원)	전체 예산 대비 문화 다양성 사업 예산 (%)
		① 가치 확산	② 소수 문화 의 영향 력 증대	③ 정책 추진 체계 구축	④ 조사 연구	⑤ 교육	⑥ 국제 교류 협력	계			
1	서울	5	38		1	2	5	51 (중복1)	133,632	27,499,622	0.49
2	부산	1	3			3		7	1,484	10,020,444	0.01
3	대구	16	22			2	2	42 (중복4)	10,293	6,400,499	0.16
4	인천	11	19				1	31	2,131	8,051,910	0.03
5	대전	2	5		1	1		9	215	4,108,245	0.01
6	울산		4					4	190	3,090,834	0.01
7	경기도	14	18	2		13	3	50 (중복3)	11,010	19,271,679	0.06
8	충청북도	10	13	1		1	1	25	6,013	3,888,910	0.15
9	충청남도	13	19			1	1	34 (중복3)	2,722	5,228,921	0.05
10	전라북도	9	24			2		35 (중복1)	10,633	5,463,649	0.19
11	전라남도	10	16	2	1	2	2	33	1,918	7,256,337	0.03
12	경상북도	7	23			11	2	43 (중복2)	28,935	7,860,100	0.37
13	경상남도	13	22	4	7	1	2	49 (중복2)	3,413	7,287,257	0.05
계		111	225	9	10	39	19	413 (중복16)	212,588	115,428,40	0.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8쪽

3) 지역별 문화다양성 인식증진 및 확산활동 : 무지개다리 사업

-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문화다양성 증진과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무지개다리 사업이 시작됨.
- 2012년 시범사업 이후 2013년과 2014년 사업은 사업의 핵심가치와 개념 정리, 타 사업과의 차별화를 집중적으로 고민. 2015년에는 「문화다양성법」에 기반을 둔 사업 지향점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됨. 2016년 이후 단 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평가’ 연구를 진행함
- 컨설팅·평가에 의하면 2016년부터 1) 사업수행 중심에서 방향·관점에 대한 고민과 정리가 시작, 2) 운영 기관 내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 졌으며, 3) 라운드 테이블의 실효성, 지속성 마련을 위한 노력이 생겼고, 4) 협력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음을 논의하며, 5) 실험적 시도, 다양한 매체 활용, 유형 간의 넘나들이 있다고 평가함.
- 무지개다리 사업의 발전방향으로는 1) 사업구조화, 2) 참여자 점점 설계, 3) 지역 내 기반 마련, 4) 운영기관 내 기반 마련, 5) 사업진출입 구조 설계를 제안함.

【표 2-5】 전국 무지개다리 사업 예산 및 주관기관 현황

	2012년 (시범사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사업 예산		22.7억원	23.9억원	24.3억원	24.3억원	19.9억원
참여 기관	6개	12개	17개	23개	23개	25개
	부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대구문화재단,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대구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성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성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부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성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부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성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2012년 (시범사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익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 원, 강원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 원, 구로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전북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 오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 원, 구로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전북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 흥재단, 강원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의정부문화예술재 단, 종로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청송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 원, 구로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 김해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 흥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 종로문화재단, 서대문구도시관리 공단(서대문문화 회관), 성동문화재단,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협의, 인제군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 원, 구로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 김해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 흥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 종로문화재단, 서대문도시관리공 단, 성동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 울산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방식	단년도 지원	단년도 지원	단년도 지원	단년도 다년도 지원	다년도 지원	3년 지원

출처 : 연도별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기관 선정 공고문,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2015, 2016, 2017)
재인용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34쪽

- 사업구조화로는 전략별 구성요소(문화다양성 기반형성, 가치 발굴, 가치 확산)간의 역량을 배분할 것과 무지개다리 세부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사업 지향점을 설계할 것을 제안함.
- 참여자 점점 설계분야는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발굴 및 규정,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확산을 위한 운영 방식, 다수자와 소수자의 연계성 확보를 제안함.
- 지역기반마련 분야는 협력단체 발굴 및 역할 규정, 행정인력 등의 지자체 협력구조 설계, 홍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 내 인식 확산의 기반마련을 제안함.
- 운영기관 내 기반마련분야는 운영기관 내 사업담당자 외 인력의 문화다양성 관점의 형성, 사업담당자의 지속성 확보 및 역할 강화, 운영기관 내 문화다양성 관점을 적용할 구조마련을 제안함.
- 사업 진출입 구조 설계 분야에서는 무지개다리 사업 지원 이후의 운영기관 및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점 지속성, 무지개다리 사업 연차별 달성 목표의 로드맵 수립을 제안함.

【그림 2-1】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평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5쪽

- 부평구문화재단의 2018년~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은 [표 2-5]와 같음.
이 중 본 연구는 정책·자원개발 중 ‘R.지역연구’ 분야에 속함.

【표 2-5】 부평구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평등한 시리즈’ 중장기 계획(2018~2020)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의식 확산	W.릴레이인터뷰	W.릴레이인터뷰	W.릴레이인터뷰
	M.휘파람 마켓	P.거점지역 예술파티	F.거점지역 예술축제
		E.시범교육, 강사 발굴	E.교육확대, 강사양성
		A.혐오표현금지 캠페인	A.차별표현금지 캠페인
정책자원 개발	G.여성 집담회	G.여성 집담회	G.여성 집담회
	R.지역연구	M.문화공간,생활영역 발굴	M.지지기반 발굴
콘텐츠 개발 보급			P.포럼연극 제작 및 공연
			J.예술여행
추진기반마련	N.실행그룹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N.실행그룹 네트워크 구축	N.문화다양성네트워크 구축
	NW.네트워크 워크숍		
	C.소수자 모임 발굴	C.소수자 모임 결성	C.소수자 모임 활동 지원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6

4) 문화다양성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⁴⁾

○ 문화다양성 가치의 인식 제고

- 정책 현황조사 결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문화다양성 사업들의 유형을 보면 일반국민들의 인식 정도를 높이는 사업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일반 국민 대상의 사업 확대가 필요함.
- 문화다양성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비교적 낮음. 부처별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인식정도가 다르며 이에 따른 자료제출이 차이를 보임. 문화다양성 정책의 범주 및 대상,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물리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반면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이나 정책담당자 등의 인적 자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인적 자원 등의 인프라의 확보와 더불어 담당자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재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정책입안자와 담당자, 관련기관 및 시설의 사업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이 충분치 않아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필요하고, 현황에서 나타난 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보편적 가치 제고 필요

-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가장 많은 반면,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독립예술 및 대안문화예술은 소수로 대상별 격차가 매우 큼. 또한 여성대상의 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양한 소수자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
-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평가나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2015년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를 조사한 결과 총 517건 중 조사연구는 11건으로 전체의 2.13%에 불과함. 정책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책의 항목과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체계적인 연구 및 평가 추진이 필요함.

4) 김면, 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7-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다양성 정책 수단 및 재원의 확대

-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단일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부처별 사업이 중복돼 예산집행의 효율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함. 전체적인 정책효과성을 높이고 부처 간,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심의하는 정책단위가 필요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모든 문화정책의 기본토대임.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제시하여 추진할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함. 문화다양성 증진을 중점과제로 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관련예산이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5)의 결과 정책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예산부족으로 애초에 기획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충분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마. 소결

1)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본질이자, 인권으로서 개인 및 집단이 가지는 정체성이나 문화 그 자체가 그대로 존중되고 장려되어야 할 기본권임.
- 다문화주의가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과의 차이를 극복하며 어떻게 서로 섞여서 잘 살아갈 것인가를 지향하는 동화주의에 기반 해 있다면, 문화다양성은 차이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함. 여기서 문화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생활양식을 포함함. 또한 여기서의 문화적 차이는 지역, 나이, 소득, 성, 장애, 인종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문화다양성이 국민국가 혹은 인종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온정주의적 접근을 한다면 힘 있는 정책을 발휘할 수 없음. 국민국가 혹은 사회 내부

개인들의 문화적 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휘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의 목표는 “기본적인 인권, 문화민주주의의 증진, 모든 소수자들의 동등한 참여에 초점”을 맞춤(노명우, 2013).

- 이러한 목표 하에서만 한 지역과 사회에 사는 모든 개인의 문화적 권리가 국적과 인종을 떠나서 보호되는 정책이 가능하고 나아가 문화다양성은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는 또 다른 목적과 결합하게 함(노명우, 앞의 글).

2) 문화다양성 정책

-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문화다양성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의 발굴과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임. 반면 조사연구 사업은 비중이 낮아 일관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회성사업으로 그치는 측면이 많음. 또한 예산도 전체 비중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등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이 전담부서가 모든 부처 및 부서간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연계와 연대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부평구의 문화다양성 정책에도 시사점이 있음.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 전문 인력의 확충과 재생산, 조사연구사업의 확대와 강화,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연구”로서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부족한 ‘조사연구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평구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미를 보여줌.

3) 무지개다리 사업

- 무지개다리 사업은 각 지역별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다양성 인식증진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하는 지역들이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주체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컨설팅·평가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계도 존재함.
- 먼저, 무지개다리 사업의 현장을 보면 참여자의 폭이 제한적임. 정주민 혹은 다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지 않는 한 이주민 혹은 소수자들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 있음. 이는 소수자와 다수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의 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 줌. 이를 위해서는 ‘우리’안의 다양성, 나아가 개인이 가진 다양성에도 주목할 것이 요구됨. 다양성이 인간의 존재방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발생할 때 문화다양성 사업으로서의 무지개다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수 있음(최혜자 2013).
- 다음으로, 기득권 즉, 다양한 위계(젠더, 인종, 계급, 나이, 장애 등)가 존재하는 사회구조에서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방안에 주목해야 함. 위계구조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배열함. 차이에 대한 관용, 포용, 수용, 지원, 공감 등 개인적 차원이 노력이 실현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을 서열화하는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문화다양성의 실현이 불가능함. 개인적 차원의 편견이 구조적 차원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불가분성’,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 구성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구조가 행위를 규제하지만 행위를 통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문화다양성 실현의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봄.

2. 여성공동체 개념

가. 공동체의 일반적 개념 정의

- 사전적 개념으로 공동체(共同體, community)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짐. 같은 말로 “공동사회”라고도 하고 이는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를 의미함(표준국어대사전). 또한 영어의 어원을 풀이하면 community : com(함께) + munis(의무)로서 같은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동호회, 교회, 정당처럼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한 범위의 그룹”(희망제작소, 2010)들도 공동체로 볼 수 있음.
- 마이클 샌델(2012)에 의하면 공동체는 도구적 공동체, 정감적 공동체, 구성적 공동체 등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음. 정감적 공동체는 일체감과 공동의 목표, 심리적 동질감, 자발성, 전체성, 전인격적 존재로의 인식을 특징으로 하며, 도구적 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협동하는 공동체로서 회사, 동호회, 정당 등이 이에 속함. 구성적 공동체는 정감적 공동체 이상의 공통된 감정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공동의 목적과 실천, 애착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과 결속된 성원의식을 갖는 것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방향, 행복 등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공동체로 광의의 도구적 공동체로 분류되기도 함(성정현, 2007).
-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팀과 지원조례에서 정의하는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음과 같음.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공동체” :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수 사람에 의한 같은 지역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한 모임

「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결과적으로 ‘공동체’는 ‘같은 목적과 책임/의무를 가지고 생활이나 행동을 함께하며, 어느 순간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일군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따라서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일정한 공간의 공유, 일정한 목적과 의미의 공유, 이에 따른 책임과 역할의 공유, 일정한 시간 및 삶의 공유가 전제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공동체사이의 갈등조정이 중요한 관건임.

나. 문화다양성 정책에서의 정의(正義)⁵⁾

- 그동안 한국사회는 독재와 산업화시대를 거쳐 오며, 단일주의가 생존에 필수적이고 가장 효율적 방식이라고 믿어왔음. <단일한>, <통일된>의 사회적 의미는 ‘생존에 필수적인’, ‘효율적인’, ‘경쟁력이 있는’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다양한>, <남과 다른>은 ‘튀는’, ‘비효율적인’, ‘국론분열’, ‘경쟁력이 없는’, ‘느린’의 뜻으로 받아들여짐.
- 미시간 대학의 스콧 페이지 교수(2007, Difference)는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는 이론을 제시함.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의미임. 덜 똑똑하지만 덜 다양한 그룹보다,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그룹의 문제해결능력이 더 생산적이라고 함. 집단오류 = 평균오류 - 다양성이라는 공리를 입증하며 집단지성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5) 이완, 2017,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다양성 활동”, 『2017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회관

주장을 함. 이것이 ‘실용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용적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단일하고 획일적인 공동체 이데올로기를 넘어 다양성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공간 내 공존’ 보다는 ‘상생적 연대성 제고’로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걸쳐 질적인 변화가 요구됨.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점유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내면서 화학적 공존을 모색해야 함(류정아 2017).
- 이러한 개념정의에서는 다양한 정체성의 집단들이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전제할 수 있음. 정체성의 다양함이 문화의 다양함으로 드러난다는 기획은 그 자체로 문화다양성이 인간사회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드러냄. 따라서 문화다양성에서의 공동체란 ‘차이에 기반 하는 공동체’ 혹은 ‘정체성의 공동체’,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창출하는 공동체라는 기본가치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음.

다. 여성공동체 개념

- 그동안 여성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노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그러한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김영정 2018, 오미영 외 2006, 전희정 2014), 여성들이 만드는 마을 만들기 사업 분석(조연숙 2013, 최성희 2014, 최희영 외 2014) 등이 대다수임. 따라서 여성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 차원의 연구는 부족함.
- 여성공동체를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⁶⁾와

6) ‘empowerment’ 는 ‘역량강화’, ‘힘 갖추기’, ‘권력 강화’ 등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임파워먼트’로 통일해서 사용 함.

관련해서 분석하는 측면이 있음(이인숙 2012, 이해정 2010, 성정현 2007). 여성들이 공동체를 통해 임파워먼트되며 이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자원으로 기능함.

- 임파워먼트는 1970년대에 제3세계의 개발(development)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가장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 하에서의 개발로 이해됨. 권력은 무엇보다 자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 역량강화는 가난하고 소외된 제3세계가 자체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전통 속에서 뿌리내려진 삶의 양식과 지식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제3세계의 지역공동체나 풀뿌리 공동체 운동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와 지식을 존중하는 것임. 임파워먼트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 소수자들의 힘·역량·권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임.
-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집단은 남성들이며, 여성들은 남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임. 따라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란 남성에게 집중된 권력-사회적 힘을 여성들이 소유하고자 하거나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의미함(주체화의 과정). 또한 여성자신과 여성 집단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힘이나 정치적 세력화를 증진하는 과정을 의미함. 즉, 상대적으로 비권력적인 집단인 여성들이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임.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정보 및 친밀감의 교류는 개인으로 존재할 때에 비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본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음. 또한 공동체문화 및 이들의 창작문화는 문화자본을 확대하도록 할 수 있음. 공동체 활동은 여성들에게 사회 자본 및 문화자본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라. 소결

1) 여성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

- 본 연구에서 여성공동체란 ‘차이에 기반 하는 공동체’ 혹은 ‘정체성의 공동

체',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창출하는 공동체로 정의함. '여성공동체'는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정체성의 공동체'를 기본으로 함. 공통의 정체성에 기반하고, 일정한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책임과 권한을 나누며,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며 활동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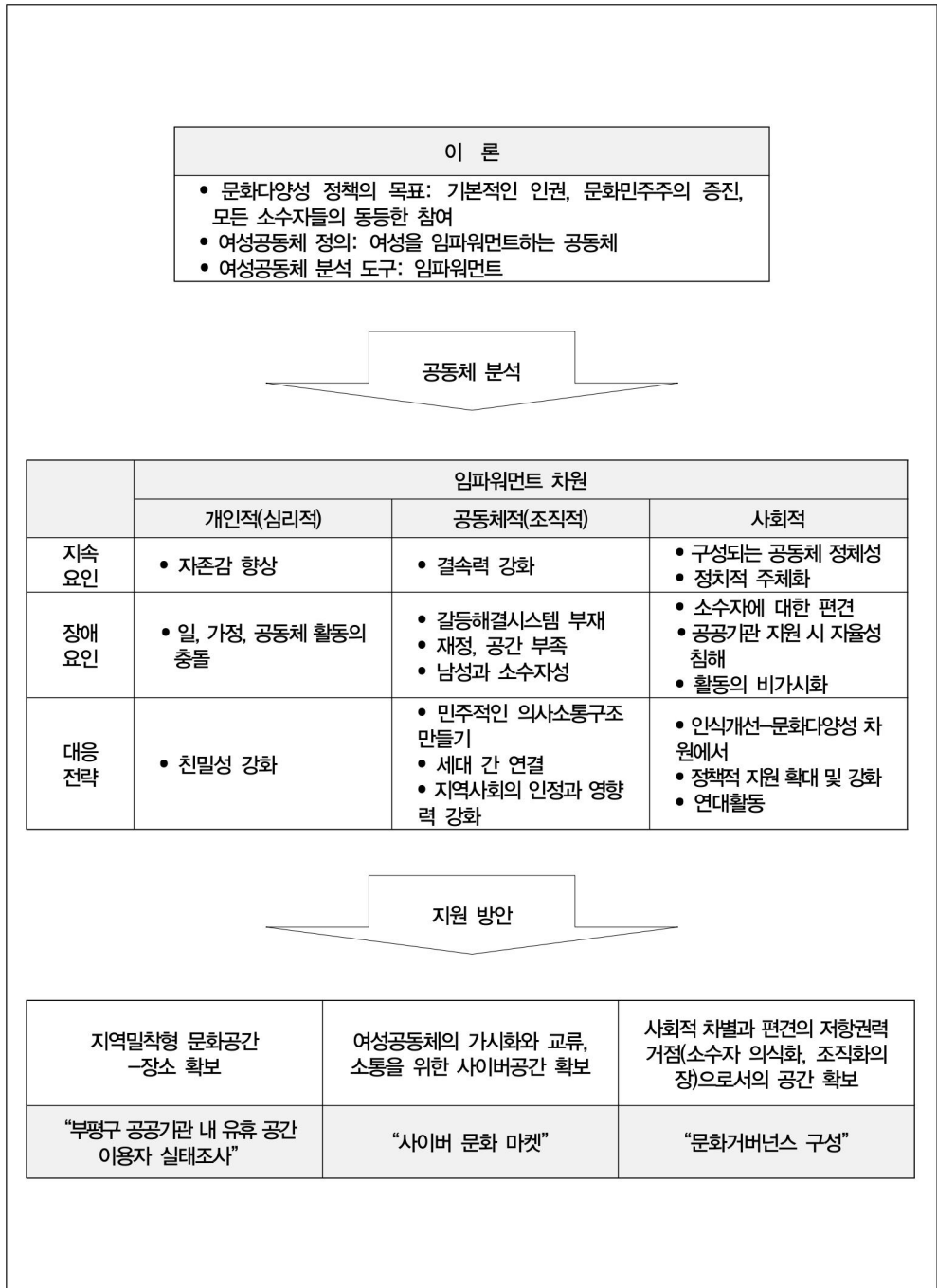
- 여성공동체들은 또한 개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목표와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차이에 기반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목적과 유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실체에 따라 도구적공동체, 정감적공동체, 구성적 공동체 모두를 포괄함.
- 여성공동체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성이 임파워먼트되는 공동체'로 정의함. 이는 공동체의 참여가 여성들의 삶과 여성공동체,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활동에서 주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여성공동체는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동일성'에 기반하고 '구성원 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구성원들이 임파워먼트'되는 소규모 여성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2) 여성공동체연구의 의미

- 여성공동체에 대한 본 연구는 여성주의(Feminism)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 연구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여성주의는 사회에 내재한 위계 중 '젠더권력관계'에 집중하며,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함.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력관계라는 프레임을 통해 여성공동체들의 일상과 문화를 분석하고자 함. 즉, 주류 남성 지배문화 안에서 여성공동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은 문화다양성 정책 함의를 줄 것으로 고려 됨.

- 지역문화는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지탱하는 지역정체성과 활력의 원천임.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자치의 원리를 따라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 - 자기지역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자원들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 라는 관점에 서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 함께하는, 참여와 자치의 주체로 활동한다는 관점에 기반함. 그동안 문화다양성 정책이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 및 수용, 관용의 관점이라는 온정주의에 기반 해 있다면 본 연구는 소수자들이 갖는 '집단적저항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함. 진정한 소수문화들의 다양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배 권력을 해체 및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때문에 여성공동체문화연구는 이 여성공동체들이 지배적인 남성권력, 가부장제에 저항하고 대안의 문화를 모색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문화다양성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전제 함.

【표 2-6】 연구 흐름도



Chapter III

2018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연구

부평구 여성 및 정책 현황

1. 여성 일반 현황
2. 부평구 정책 현황

III. 부평구 여성 및 정책 현황

1. 여성 일반 현황⁷⁾

가. 인구

1) 여성이 많은 도시

- 부평은 2017년 현재 인구 559,112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18.1%, 인구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말 현재 부평 인구 560,649명(세대수 216,492가구) 중 여성이 281,819명으로 50.3%임. 2000년 49.5%에 비해 0.9p% 상승했음. 인천시 여성 평균 비율 49.6%보다 1.7p% 높음.
- 부평 인구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2017년 말 현재 12,221명으로, 그 중 여성은 5,949명(48.7%)임.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음.
- 장애인 인구는 2017년 26,928명으로 부평 인구의 4.97%, 그중 여성은 10,946명(장애인의 40.6%)임. 이는 2007년 36.9%에 비해 3.7p% 증가한 것임. 인천시 8개 구 중 장애인이 가장 많음. 장애여아보육 비율은 31.1%임.

7) 이 부분의 통계는 부평구, 2017a, 『부평구 2017 성인지 통계』, 2017b, 『제29회 부평구 기본통계』, 2018a, 『부평구 2018 성인지 통계』, 2018b, 『부평구 2018년 주요업무시행 계획』, 2018c, 『2018 부평구 가계부』 인천광역시, 2017, 『인천시 2017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작성함.

2) 여성노인이 많은 도시

- 연령별 인구를 보면 59세까지는 남성이 더 많거나 비슷함. 60세 이상부터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85세 이상에서는 남성의 3배가 됨. 여성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35~39세로 48.2%이며 45세 이후부터는 여성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고 70세 이상에서는 60.7%가 됨. 여성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95세 이상으로 79%임.
- 2018년 부평구 노인 인구는 63,959명으로 인천시 8개 구 중 가장 많고, 노령인구율은 2018년 11.8%임. 따라서 유년부양비는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⁸⁾는 증가하고 있음. 또한 노령화 지수⁹⁾도 지속적으로 증가(2010년 52.1%, 2015년 82.2%)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2015년 1.18명으로 전국평균 1.24명보다 낮음. 인천시에서는 8위임.

【표 3-1】 부평구 노령인구율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12	566,793	51,401	9.1
2013	565,313	53,902	9.5
2014	566,321	56,601	10.0
2015	565,972	59,354	10.5
2016	560,649	60,940	10.9
2017	539,941	63,959	11.8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b

8) 비생산연령인구 중 노년인구(65세 이상)를 생산 가능연령(15-64세) 인구로 나눈 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9) 유년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동 지수가 증가할 때 이러한 현상을 인구의 노령화라 하며 인구의 연소화에 대한 상대화 개념

나. 가족

1) 여성가구주의 증가

- 부평구 1인가구와 1세대가구는 2015년 기준 각 23.1%, 15.4%임.
-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2000년 14.9%, 2010년 25.2%, 2015년 29.2%).
- 전체 여성가구주 중 미혼 여성가구주 20.2%, 배우자 있음 여성가구주 25.2%, 사별 30.9%, 이혼 23.9% 등으로 여성가구주가 되는 이유가 다양하나 남성가구주는 배우자있음이 78.8%로 압도적으로 많음.
- 한부모 가구 수는 25,026가구로 총가구수의 12.6%이며 2000년 8.6%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그 중 81.7%(20,438가구)가 모자가구임. 모자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자가구는 소폭 감소함.

【표 3-2】 성별 혼인상태별 가구주 비율(2015)

	미혼	배우자 있음	이혼	사별
남	12.7	78.8	6.3	2.3
여	20.0	25.2	23.9	30.9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a, 42쪽 재구성

2) 노령 여성가구주의 증가

- 1인가구의 성별은 남녀 비슷함. 2005년, 2010년의 경우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약간 높았으나 2015년에는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약간 높음.
- 여성가구주의 연령대는 80세 이상이 83.2%로 가장 많음. 다음이 70~79세가 79.4%, 65~69세 74%, 60~64세 64.8% 순임. 이중 다른 연령대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8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음.

다. 결혼

1) 초혼연령 증가

-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음. 2017년 현재 여 30.1세, 남 32.6세임.

2) 결혼이주 감소

-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아내+외국인 남편 혼인비율은 2015년 말까지는 증가하다 2016년에 감소함.

【표 3-3】 외국인과의 혼인(2016년 말 기준)

	남편 혼인건수	남편+외 국인 아내	비율	아내 혼인건수	아내+외 국인 남편	비율
2012	3,595	224	6.2	3,574	81	2.3
2013	3,564	205	5.8	3,382	73	2.2
2014	3,468	157	4.5	3,330	77	2.3
2015	3,396	137	4.0	3,321	80	2.4
2016	3,392	126	3.7	3,214	54	1.7

출처 : 부평구, 2017b, 62-63쪽에서 재구성

【표 3-4】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및 자녀

(행정자치부 2016. 11. 1 기준 / 단위: 명)

구분	총계	남	여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부평구	5,403	1,751	3,652	3,322	682	2,640	2,081	1,089	1,012

출처 : 부평구, 2018b, 274쪽

라. 교육

1) 35세 이하에서 남성보다 높은 여성교육 수준

- 부평구민의 평균 교육 년 수는 평균 12.1년(여성 11.5년, 남성 12.6년)임.
- 30~34세 이하에서는 여성의 교육 년 수가 남성보다 높은 반면 35~39세 이상에서는 점차 남성이 높아지다가 50세 이상이 되면 격차가 급격히 벌어짐.
- 대학진학률은 67.1%로 인천시 평균 66.0%보다 높음. 이중 여성은 67.7%, 남성은 66.5%로 여성 진학률이 1.2p% 높음.

마. 경제와 노동

1) 학력과 연동된 경제활동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비율이 활발함. 대학원 및 박사과정에서 여성 73.2%, 남성 83.9%가 경제활동 중임. 반대로 학력이 낮을 경우 경제 활동률이 낮아지는데 무학일 경우 가장 낮음(여성 5.8%, 남성 10.7%).
- 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 활동률이 낮아지는데 학력과 연동되어 그 격차가 심해짐.

2) 조직 여성 노동자 감소

- 노동조합에 가입한 여성은 2012년 11.2%에서 2016년 8.7%로 감소하고 있음.

【표 3-5】 여성 노조원 수

	노동조합수(개)	조합원수		
		계(명)	여(명)	비율(%)
2012	24	1,593	179	11.2
2013	25	2,010	244	12.1
2014	25	2,061	178	8.6
2015	29	2,122	196	9.2
2016	26	1,758	153	8.7

출처 : 부평구, 2017b, 64-65쪽에서 재구성

3) 여성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총 12,708개소(39.5%)이며, 여성종사자수는 총 73,834명(47.0%)임.
- 여성대표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3,369개소(61.0%), 교육서비스업 815개소(56.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08개소(51.1%)임.
- 여성종사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902명(82.5%), 금융 및 보험업 4,816명(68.0%), 숙박 및 음식점업 10,064명(63.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71명(51.1%).

【표 3-6】 부평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및 종사자 비율

산업대분류	사업체수	여성 대표자수	비율	종사자수	여성 종사자수	비율
제조업	3,433	667	19.4	38,560	10,451	27.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	0	457	89	19.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7	20.6	264	30	11.4
건설업	938	157	16.7	7,772	1,793	23.1
도매 및 소매업	8,040	3,450	42.9	23,710	11,758	49.6
운수업	3,656	257	7.0	6,930	694	4.4
숙박 및 음식점업	5,525	3,369	61.0	15,770	10,064	63.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0	23	16.4	1,687	567	33.6
금융 및 보험업	399	70	17.5	7,083	4,816	68.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96	605	43.3	4,065	1,689	41.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7	75	15.7	3,382	1,076	3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03	136	33.7	5,107	2,162	42.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4	8	14.8	2,927	1,065	36.4
교육서비스업	1,436	815	56.8	11,361	8,070	7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34	612	45.9	16,842	13,902	82.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50	549	47.7	2,962	1,437	4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24	1,908	51.2	8,169	4,171	51.1
총계	32,144	12,708	39.5	157,012	73,834	47.0

출처 : 부평구, 2017b, 64-65쪽에서 재구성

4) 가난한 여성

○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¹⁰⁾은 2015년 말 44.2%로 남성보다 낮음.

【표 3-7】 부평 여성 국민연금 가입율

	총가입자	여성	비율
2012	220,387	-	-
2013	185,190	79,112	42.7
2014	184,410	80,322	43.6
2015	184,640	81,569	44.2
2016	184,028	-	-

출처 : 부평구, 2017b, 170쪽에서 재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6년 말 현재 23,338명으로 그 중 여성은 13,381명(57.3%)임. 2018년 22,530명으로 8개 구 중 가장 많음.

【표 3-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비율

	가구	인원	여성	비율
2012	9,809	16,720	-	-
2013	9,922	16,628	9,400	56.5
2014	10,139	16,722	9,355	55.9
2015	13,853	23,062	12,453	54.0
2016	14,415	23,338	13,381	57.3

출처 : 부평구, 2017b, 184쪽에서 재구성

○ 2016년 기초수급자는 29,925명으로 여성은 16,015명(54%)임.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49.4%를 차지함. 여성수급자가 남성수급자보다 많은 연령대는 3~40대와 60세 이상임. 그중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10) 국민의 기본생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임. 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임

70세 이상이며 그 다음이 40대임

- 자격별 의료보장 적용인구도 여성 10,866명으로 남성 8,632명 보다 많음.
- 여성노인이 많은 만큼 기초노령연금 수급여성이 많고 여성노인의 76%가 노령연금 수급자임.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임.
- 한부모 가구도 저소득층이 많음.

【표 3-9】 부평 여성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단위: 명, %)

	전체노인	여성노인	여성수급자	수급비율
2012	51,401	30,339	22,530	74
2013	53,902	31,591	23,503	74
2014	56,601	32,953	25,189	76
2015	59,354	34,367	26,212	76
2016	60,940	35,154	26,617	76

출처 : 부평구, 2017b, 186-187쪽에서 재구성

【표 3-10】 부평 독거노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단위: 명, %)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저소득노인			일반		
	합계	여	비율	소계	여	비율	소계	여	비율	소계	여	비율
2013	13,185	9,568	72.6	3,304	2,553	77.3	735	567	77.1	9,146	6,448	70.5
2014	13,841	9,803	70.8	3,477	2,641	76.0	799	633	79.2	9,565	6,529	68.3
2015	13,757	9,888	71.9	3,814	2,857	74.9	808	629	77.8	9,135	6,402	70.1
2016	14,659	10,332	70.9	4,281	3,101	72.4	1,034	798	77.2	9,344	6,493	69.5

출처 : 부평구, 2017b, 206-207쪽에서 재구성

【표 3-11】 부평 저소득 한부모 가족(2016년)

(단위: 가구, 명)

합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3,204	7,812	712	2,959	2,492	4,853

출처 : 부평구, 2017b, 196-197쪽에서 재구성

바. 삶의 만족도

1) 성별화된 행복 시기

- 여성은 10대 때 가장 행복감을 덜 느끼다가 점차 상승하여 50대에 최고조에 이름. 60대에 급락하나 70대가 되면 회복됨. 반면 남성은 10대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다가 점차 하락하여 50대에 가장 낮음, 60대 이후 회복됨. 70대에는 남녀가 비슷해짐. 즉 여성과 남성이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가 정반대임.
- 스트레스 인지율¹¹⁾도 시기에 따라 다름. 여성은 1~20대에 가장 많이 느끼다가 점차 감소함. 반면 남성은 1~20대부터 점차 상승하여 40대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시 감소함. 70대에는 남녀가 비슷해짐(행정자치부·부평구, 2016).

2) 우울한 여성의 삶

- 우울감 경험비율¹²⁾은 50대만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경험률이 압도적으로 많음. 특히 30대에서는 여성의 우울감 경험비율이 남성의 4.5배, 70대 이상에서는 4.7배에 이름. 여성은 1~30대에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점차 낮아지다가 70대에 이르러 급증함. 남성은 30대에 가장 낮고 점차 상승하여 50대에 가장 높아져 유일하게 여성을 추월함.
- 그러나 부평구 여성은 남성보다 행복지표가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부평

11) (평균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12)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구 행복지표 평균은 6.20점이며 성별로 보면 여성은 6.24점, 남성은 6.17점.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 6.36점, 전업주부 6.32점임(행정자치부·부평구, 2016).

사. 정치 및 사회참여

1) 상승하는 여성투표율

-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여성투표율이 남성투표율을 앞지르고 있음.

【표 3-12】 부평 대통령 선거 투표율

(단위 : %)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여성	67.5	59.8	74.5	76.1
남성	68.5	60.5	71.6	73.8

출처 : 부평구, 2017b, 76쪽에서 재구성

-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시 상승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와 달리 여성투표율이 남성투표율에 미치지 못함.

【표 3-13】 부평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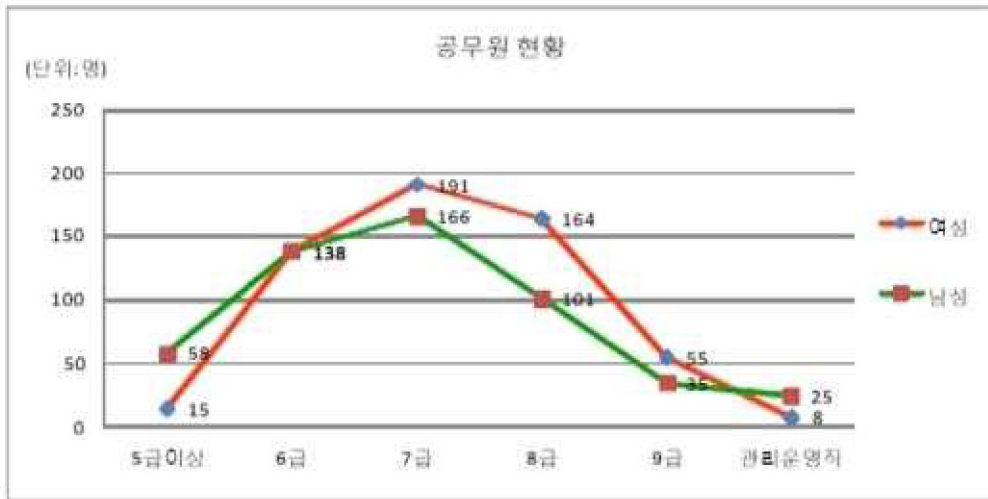
	2008년	2012년	2016년
여성	38.6	50.2	55.6
남성	41.3	52.3	57.8

출처 : 부평구, 2017a, 77쪽에서 재구성

2) 상승하는 여성공무원 비율

-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1년 9%에서 2016년 19.4%, 2017년 20.5%에 이름.

【그림 3-1】 부평 여성 공무원 현황



출처 : 부평구, 2018a, 33쪽에서 재구성

3)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증가

- 각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위촉률은 증가하고 있어 2016년 49.6%, 2017년 50.6%임. 그러나 위원회마다 위촉률의 차이가 큼.

【표 3-14】 부평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

	위원수			여성위원수			(단위 : 명) 위촉직 여성위원 위촉률(%)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2011	1,730	301	1,429	640	23	617	43.2
2015	1,791	362	1,429	775	67	708	49.5
2016	1,714	335	1,359	743	69	674	49.6

출처 : 부평구, 2017a, 79쪽

4)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 2017년 부평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6,355명이며 이 중 여성은 56,142명 65%임, 실제 활동하는 여성 자원봉사자 비율은 66.9%임. 연령대로 보면 14~19세 자원봉사자가 8,944명, 37.2%로 가장 많음. 다음은 40~49세 4,085명(17%), 50~59세 2,342명(9.7%), 30~39세 2,072명(8.6%)의 순임.

【그림 3-2】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



출처 : 부평구, 2018a, 32쪽에서 재구성

아. 문화 및 정보

1) SNS 적극 활용

- 행정기관과의 소통방법은 남녀 모두 SNS(여 31.5%, 남 31.7%)를 제일 많이 이용함. 다음은 관공서 직접 방문(여 25.6%, 남 24.4%), 부평구 홈페이지(여 25.6%, 남 20.7%) 순임.

2) 적극적인 문화 활동¹³⁾

- 여가활동참가율¹⁴⁾은 여성(39.9%)이 남성(29.6%)보다 높음(인천시 평균 34.7%).
- 신문 구독 인구¹⁵⁾는 남성이 많음(남 79.2%, 여 69.7%). 남성은 주로 일반 신문(남 45.7%, 여 32.5%), 여성은 인터넷신문(여 90.8%, 남 86.9%)을 이용함.
- 독서인구¹⁶⁾는 여성 59.5%, 남성 53.3%으로 여성이 더 많음. 구독서는 남녀 모두 직업 관련 서적, 교양서적 순임.
- 여가활동에 대해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음. 여성은 만족(약간 만족 +매우 만족) 24.1%,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28.9%임.
- 불만족한 경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여 60.9%, 남 58.9%), 시간부족(여 20.9%, 남 21.8%)임.

자. 소결

- 부평은 여성이 50.3%인 지자체임. 노인여성이 많고 여성가구주가 증가하고 있음.
- 학력과 경제활동이 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여성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으며 여성종사자의 18.8%에 이르는 다수가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음. 그러나 가난한 여성이 많음.
- 여성과 남성이 행복감을 느끼는 연령대가 반대로 나타남. 여성은 10대에 행

13) 이 부분은 부평구 별도의 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인천광역시, 2017, 『인천시 2017 통계연보』를 활용함.

14) 한달에 한번(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

15) 13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

16) 1년간 1권 이상의 책(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류는 포함하고 참고서는 제외)을 읽은 사람

복감을 가장 덜 느끼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복감이 높아짐. 여성의 우울감 경험이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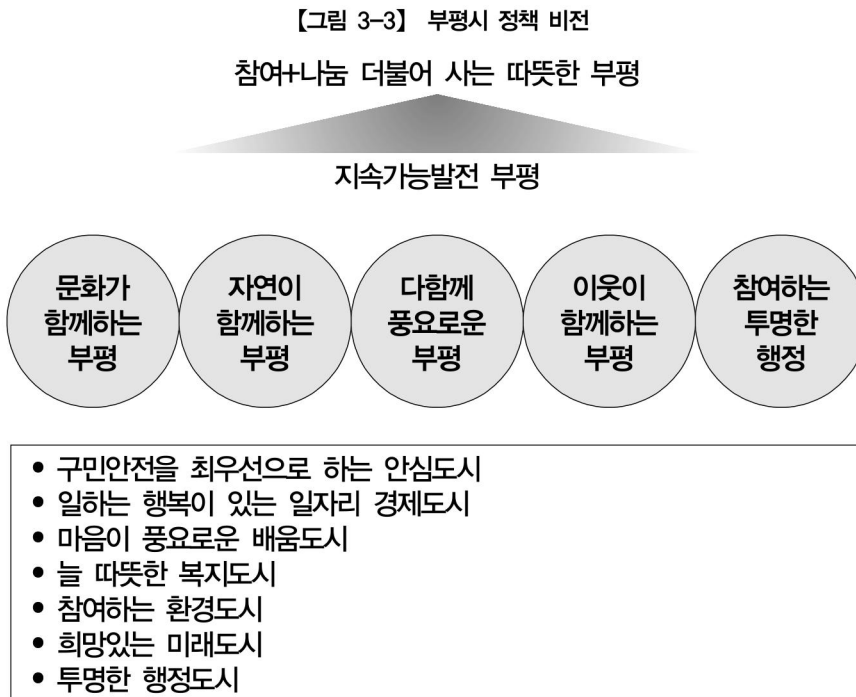
- 젊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며 활발함. 투표율과 공직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자원봉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음.
- 여성들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들은 행복감 보다는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낌. 여성들은 사회참여나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특히 여성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성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2. 부평구 정책 현황

가. 부평구

1) 정책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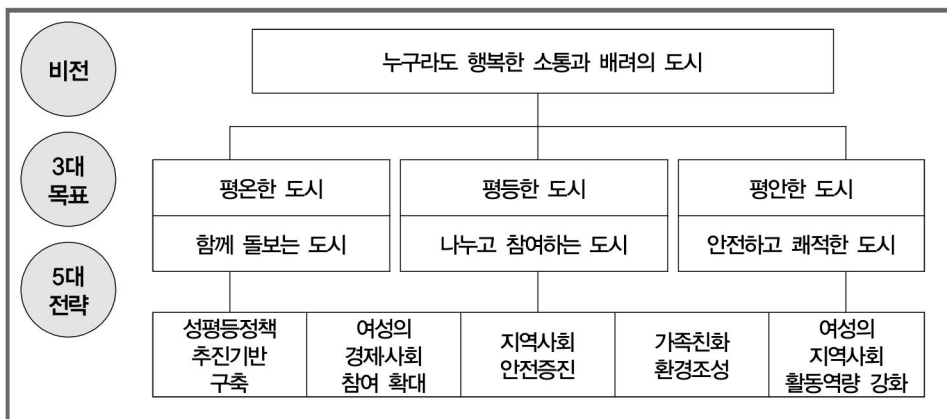
- 부평구는 부평미래비전 5대 전략, 7대 방향 중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 ‘이웃이 함께하는 부평’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화다양성, 여성문화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나가고 있음.



출처 : 부평구 홈페이지

- 부평구 여성친화도시는 ‘누구라도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
-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연 1개동)
-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 :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활동가 양성(37명) 및 육아코칭서비스(7종), 지역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15개 기관),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5개 단체), 여성동아리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대여사업(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 홈페이지)
-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33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나눔 봉사단 및 자조모임, 알리미봉사단(동별 1인, 총 22명)

【그림 3-4】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비전, 목표와 전략



출처 : 부평구 홈페이지

2) 재정

○ 낮은 재정자립도와 감소하는 문화·교육예산

- 정책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은 미약함. 2016년 재정자립도는 20%로서, 2012년 30%에서 하락 추세에 있음. 2018년 재정자립도

19%, 재정자주도¹⁷⁾ 35.8%로 동구와 강화를 제외한 8개 구 중 각각 5위, 7위임 (부평구, 2018c).

- 재정자립도가 약해진 가운데 문화 및 관광·교육 예산은 더욱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2018년 사회복지비 비율 64.2%로 8개 구 중 가장 높고 증가추세임(부평구, 2018c).

【표 3-15】 부평구 일반 세출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합계		공공질서 및 안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2012	409,140	소계	2,638	10,789	13,583	16,082	237,091
		비율	0.6	2.6	3.3	3.9	57.9
2013	496,144	소계	2,793	9,902	17,048	17,129	277,562
		비율	0.6	2.0	3.4	3.5	55.9
2014	525,302	소계	5,016	10,904	19,188	18,980	309,130
		비율	1.0	2.1	3.7	3.6	58.8
2015	564,032	소계	3,372	9,320	14,857	18,680	357,772
		비율	0.6	1.7	2.6	3.3	63.4
2016	614,663	소계	5,593	9,964	18,609	22,423	373,390
		비율	0.9	1.6	3.0	3.6	60.7
2017	687,500	소계	8,200	7,100	20,100	27,600	441,400
		비율	1.2	1.0	2.9	4.0	64.2

출처 : 부평구, 2017b, 254-255쪽에서 재구성

3) 사업현황

- 부평구문화재단과 별도로 부평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중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17)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자원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text{재정자주도} = (\text{자체수입}(\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자주자원}(\text{지방교부세} + \text{조정교부금}) \times 100) / \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text{나무위키})$

(1) 주민자치센터

- 부평구 산하 22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 풍물, 난타 등 45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음.

【표 3-16】 부평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 현황

주민센터명	강좌수	교육내용
갈산1동 주민센터	11	• 서예, 풍물, 노래, 난타, 댄스스포츠, 탁구, 헬스 등
갈산2동 주민센터	20	• 프리저브드, 애견, 드론, 풍물, 생활공예, 생활과학 등
부개1동 주민센터	15	• 건강체조, 요가, 에어로빅, 기타, 댄스스포츠, 풍물 등
부개2동 주민센터	9	• 한국무용, 요가, 난타, 다이어트댄스, 노래, 풍물 등
부개3동 주민센터	12	• 수채화, 피아노, 공예, 풍물, 천연비누, 화장품만들기
부평1동 주민센터	37	• 문화지리, 한국사, 한자, 한글교실, 뱃칸공예, 압화공예
부평2동 주민센터	8	• 우리집꾸미기, 다이어트댄스, 풍물, 동화구연, 한국어
부평3동 주민센터	100	• 웃음치료, 풍물, 하모니카, 댄스, 역사토론, 신문만들기
부평4동 주민센터	13	• 우쿨렐레, 풍물, 청소년 갈등관리 및 치유프로그램 등
부평5동 주민센터	12	• 풍물, 캘리그래피, 민요, 댄스, 무용, 요가 등
부평6동 주민센터	7	• 풍물, 요가, 천연비누, 화장품, 우쿨렐레, 서예, 인터넷 등
산곡1동 주민센터	10	• 댄스, 풍물, 컴퓨터, 초등독서논술, 요리, 태권, 도자기 등
산곡2동 주민센터	18	• 무용, 노래, 요가, 탁구, 하모니카, 풍물, 노인대학 등
산곡3동 주민센터	24	• 풍물, 아로마테라피, 우드버닝, 중국어, 생활과학 등
산곡4동 주민센터	32	• 생활과학, 컴퓨터, 댄스, 바둑, 종이접기, 외국어, 풍물 등
삼산1동 주민센터	15	• 타로, 댄스, 요가, 무용, 로봇교실, 우쿨렐레 등
삼산2동 주민센터	41	• 클레이, 꽃차, 로봇, 풍물, 생활헤어, 정리수납 등
십정1동 주민센터	10	• 아로마테라미, 탁구, 한자, 풍물, 요가, 미술 등
십정2동 주민센터	7	• 요가, 발리댄스, 한자, 탁구, 서예, 헬스 등
일신동 주민센터	16	• 기타, 요가, 풍물난타, 댄스, 노래, 서예 등
청천1동 주민센터	15	• 건강체조, 요가, 에어로빅, 기타, 댄스스포츠, 풍물 등
청천2동 주민센터	19	• (동아리반 따로 운영) 척추운동, 기타, 서예, 난타, 풍물 등
	451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 57쪽

(2)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

-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는 주민과 여성 네트워크 기관이 함께 여성들의 성장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 여성 리더십 향상 워크숍, 풀뿌리 기자단 운영, 육아활동가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관련 동아리에게 활동 공간 대여, 동아리 발표의 장 제공, 지역사회 공헌 연계 등을 돕고 있음. 현재 32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음.

(3) 주민참여 사업

- 부평구는 주민참여예산,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함께 공동체 육성을 유도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3-17】 주민참여 사업 현황

분야	사업내용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역량강화 교육	• 지역리더 양성 • 마을활동가 지원 •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 주민강사단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부평구 사회적기업협의회(19개) 및 부평구 마을기업협의회(8개) 운영 •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나눔과더함> 운영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업무 통합 -7개 기업 입주 •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 마련(추진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 희망마을 공모사업 조성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외골문화회관과 산곡1동 요리교실 • 동별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동위원 리더 아카데미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출처 : 부평구, 2018b에서 재구성

【표 3-18】 부평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구분	총계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¹⁸⁾	일반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업체수	102	14	5	9	57	9	8

출처 : 부평구, 2018b, 209쪽

【표 3-19】 부평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현황(2017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돌보는마을 (마을)	배우는마을 (교육)	즐거는마을 (문화)	지속가능마을 (환경)	안전한마을 (안전)
단체수	32	7	9	12	3	1
지원예산	136	24	45	53	9	5

출처 : 부평구, 2018b, 214쪽

※ 인천광역시 공모사업 8개, 35만원

(4) 도서관

- 도서관은 총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시립 2개소, 구립 6개소, 작은도서관 30개소(구립 7, 사립 23).

【표 3-20】 부평구 도서관 현황

유형	도서관	운영기관	위치
시립 공공도서관 (2개)	부평도서관	인천광역시 교육청	십정동
	북구도서관		부평동
구립 공공도서관 (6개)	부개도서관	부평구문화재단	부개동
	삼산도서관		삼산동
	부평 기적의 도서관		부개동
	청천도서관		청천동
	갈산도서관		갈산동
	부개어린이도서관		부개동

- 18)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유형	도서관	운영기관	위치
공립 작은도서관 (7개)	꿈나무작은도서관	각 동별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산곡동
	샘터작은도서관		십정동
	희망천작은도서관		부평동
	산곡굴향기작은도서관		산곡동
	갈산밀알도서관		갈산동
	글마루도서관		부평동
	동수작은도서관		부평동
부평동사립 작은도서관 (23개)	소망글사랑문고	민간운영 (개인, 교회, 마을주민공동체, 여성단체 등에서 운영)	갈산동
	꿈땅도서관		부평동
	늘푸른도서관		부평동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부평동
	진달래어린이문고		부평동
	쑥덕쑥덕 작은도서관		부평동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산곡동
	해오름 작은도서관		산곡동
	품앗이어린이도서관		산곡동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삼산동
	누리보듬 마을문고		삼산동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십정동
	춤추는 달팽이도서관		십정동
	늘푸른어린이문고		십정동
	동그라미도서관		십정동
	꿈이있는도서관		십정동
	엘림작은도서관		일신동
	민들레도서관		부개동
	무지개도서관		부개동
	로엠나무문고		부개동
	맑은샘 어린이도서관		청천동
	해뜨는마을도서관		청천동
	웅달샘도서관		구산동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 55-56쪽

(5) 복지시설

- 부평구 내 복지시설은 총 132개소로 지역아동센터 37개소, 노인복지시설 7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 여성복지시설 1개소, 가정지원 및 다문화 복지시설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있음.
- 이들 시설에서는 복지지원의 일환으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표 3-21】 부평구 복지시설 현황

동	지역 아동센터	복지시설					합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정· 다문화	종합	
갈산동	5	10	0	0	0	1	16
부개동	5	3	1	0	0	0	9
부평동	8	17	3	1	0	1	30
산곡동	6	10	1	0	1	1	19
삼산동	2	22	3	0	0	1	28
십정동	4	5	5	0	1	0	15
일신동	2	2	1	0	0	0	5
청천동	5	5	0	0	0	0	10
계	37	74	14	1	2	4	132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 54쪽

(6) 평생학습 네트워크

-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 학습동아리, 강사 등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표 3-22】 평생학습 네트워크

- 기타 평생교육시설: 북부교육청,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부평문화원, 역사박물관 등

평생교육기관(개소)						학습 동아리	등록 강사	재능 기부인
계	도서관	사회복지 시설	직업훈련 시설	주민자치 센터	기타평생 교육시설			
122	42	21	7	22	30	157개	429명	93명

출처 : 부평구, 2018b, 367쪽

- 학습동아리란 소모임 중에서도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집단을 말하며, 일정한 인원의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임임.
- 지원내용: 정보화, 네트워크 방안, 성장 지원
- 등록 현황: 6개 분야(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등)

(7) 문화·체육시설

- 여성들의 문화·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음.

【표 3-23】 부평구 문화체육시설

구분	시설	운영기관명	위치
문화시설 (7)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재단	십정동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구문화재단	십정동
	BP음악산업센터	부평구문화재단	십정동
	인천여성문화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	갈산2동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구문화재단	갈산2동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문화재단	삼산동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문화재단	삼산동
체육시설 (4)	인천열우물경기장	인천시체육회	십정동
	삼산월드체육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삼산동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부평구체육회	갈산1동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시설관리공간	갈산1동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 52쪽

(8) 여성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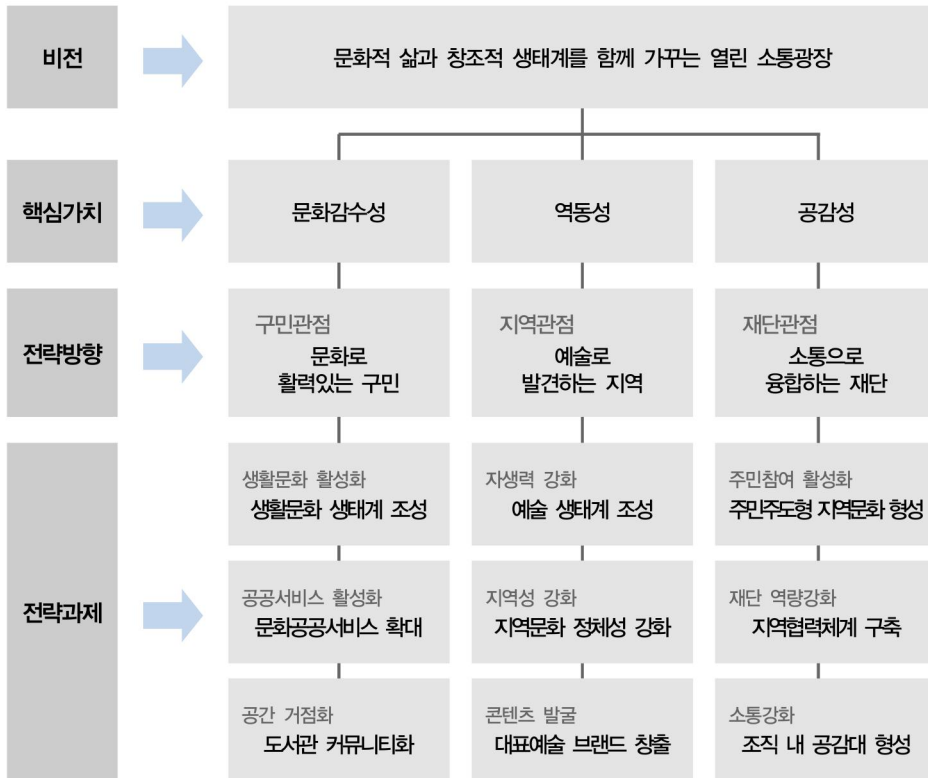
- 부평구에 등록된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부평지부, 인천여성의전화 등의 여성단체가 지역을 거점으로 여성문화공동체 형성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부평구지회 소속 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부평구지회, 한국부인회부평구지회, 부평구아파트부녀화연합회, 부평구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미용사회부평구지회, 대한민국부평구 재향군인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부평구지회여성회 등이 활동하고 있음.

나. 부평구문화재단

1) 정책비전

-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2017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을 수립하고 ‘문화적 삶과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열린 소통광장’이란 비전과 3개 전략방향과 9개 전략과제, 29개 사업과제를 제시함. 그 중 여성문화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전략방향, 전략과제, 사업과제는 다음 [표 3-24]와 같음.
 - 생활권내 동네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과제의 주요내용은 “동네문화공간 발굴을 통한 생활권 내 동네문화공간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형 프로그램 활성화”임(부평구문화재단, 2017).
 - 부평문화시민활동 매개자 양성 과제의 주요내용은 ■여성, 청소년, 청년 등 부평구민대상 문화기획자 민 시민활동가 양성 ■양성된 매개자들을 통한 부평구문화재단사업 모니터링 및 지역문화 모니터링 운영 ■매개자 네트워킹을 통한 그룹핑 및 그룹별 활동 공간·사업 연계 지원임.(부평구문화재단, 2017)

【그림 3-5】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 190쪽

【표 3-24】 여성문화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방향	전략과제	사업과제
문화로 활력 있는 구민	소통으로 융합하는 재단	생활권내 동네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소통으로 융합하는 재단	주민주도형 지역문화 형성	부평문화시민활동 매개자 양성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 192-193쪽에서 재구성

2) 재정

-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부평구문화재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임.

【표 3-25】 부평구문화재단 예산

(단위: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본예산(위탁기관포함)	10,103,074	12,089,447	13,314,893*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 95쪽에서 재구성

※ 무지개다리사업 44,500천원 포함

3) 사업현황

(1) 2017년 사업

- 부평구문화재단 2017년 사업추진 전략과제 중 여성 문화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업 분야는 ‘주민참여 및 생활문화 활성화’임. 이 중에서도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생활문화동호회 공간지원 사업’,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나 문화공동체 육성 지향이 드러나지는 않음.
- 생활문화동호회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표 3-26】 부평구문화재단 사업(2017년)

구분	사업명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협치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부평문화포럼
	부평문화HUB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지역예술가·예술단체 역량강화아카데미
	지역예술 활성화 공모사업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음악도시-솔아솔아 음악제, 부평밴드페스티벌, 국제 뮤직 컨퍼런스, 인천부평대중음악아카이빙
	(도서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 지역연계활동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문화캠페인, 학교축제지원

구분	사업명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상주단체 지원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 부평구립풍물단운영
	제작공연-할라공이의 모험,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로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텐츠 영상화 사업
	찾아가는 문화마실 언플러그드
	부평구문화사랑방 공연사업
	음악도시-음악동네 만들기, 부평 POP-UP피아노, 음악감상회, 뮤직데이
주민참여 및 생활문화 활성화	부평초록누리축제
	부평아트센터 아카데미
	부평구문화사랑방 아카데미
	부평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청년기획단 시;음
	부평생활문화축제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생활문화동호회 공간지원 사업
	음악도시-시민분과위원회 운영, 부평 청소년 피크닉 인 캠프마켓, 음향장비임대지원, BP음악산업 아카데미, 어린이음악교육
	(도서관) 정보취약 프로그램,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 창의공작 플라자, 자율참여활동, 영상미디어활동, 자원봉사활동, 건강모험활동, 한꿈카페, 평생교육, 생활체육, 운영위원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문화교육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방학특강,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토요프로그램 '성장놀이', 장애학생 계절학교, 극을 활용한 성교육,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양성, 성교육 활동가 양성, 상담활동 지원
지역주민 인문학적 소양 강화	부평아트센터 인문학 프로그램
	부평구문화사랑방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도서관) 책 읽는 부평,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단계별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 문화 인문 활동
지속가능 경영 및 문화경영	(생략)
후원문화 활성화	(생략)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17, 78-80쪽에서 재구성

(2) 부평구문화재단 등록 동아리 현황

- 부평구문화재단에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4개 분야에 2018년 기준 49개의 동아리, 703명이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음. 등록은 부평구문화재단에 되어 있으나 연습 장소는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외에도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천 상동예술마당, 서울시청 시민청, 주민센터, 학원, 교회, 개인연습실 등 아주 다양함. 활동기간도 1995년에 창립된 동아리(파란소리 밴드, 춤사랑)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에 창립된 동아리(연극팀 삼삼오오)까지 다양함.

【표 3-28】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동아리 등록 현황

구분	합계	분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동아리수	49	5	31	10	3
회원수	703	48	516	119	20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내부자료

다. 소결

- 부평구는 ‘함께+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문화와 이웃이 함께 하는 부평이라는 정책과제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구민들의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풀뿌리여성 활동을 지원하는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여성 동아리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대여사업을 진행하며, 풀뿌리 여성의 문화 공동체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는 유일함.
- 그러나 문화·교육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취미교육이나

여가지원 프로그램임. 프로그램 종료 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이 되지 않음.

- 부평구문화재단은 2017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문화적 삶과 창조적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열린 소통광장’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과 ‘주민주도형 지역문화 형성’이라는 과제를 세우고 있음. 또한 많은 문화 프로그램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동아리 지원도 하고 있음. 이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음. 특히 2018년에는 무지개다리사업으로 여성·이주민 단체, 소수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전문가를 지향하는 교육이거나, 취미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여성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성은 발견되지 않음.

Chapter IV

2018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연구

부평 여성공동체 심층면접

1. 조사 개요
2. 여성공동체 현황
3. 여성공동체 구축과 지속을
위한 대응전략

IV. 부평 여성공동체 심층면접

1. 조사 개요

가. 목적

- 부평지역 여성공동체 사례조사를 통해 그들이 생산하는 문화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함.
- 여성공동체 및 문화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공공의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나. 설계 및 방법

- 부평구에 소재하는 이주, 장애, 한부모, 노인, 노동, 학부모, 문예 등 7개 분야의 공동체 총 32명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함.
- 구조화된 질문을 기반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소요됨.
- 면접 시기는 2018년 9월 29일부터 11월 19일임.
- 면접 결과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질적 연구를 진행함.

【표 4-1】 심층면접조사 설계방법

구분	내용
대상	부평지역 여성공동체

구분	내용
참여현황	7개 공동체 총 32명
조사영역	이주, 장애, 한부모, 노인, 노동, 학부모, 문화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을 기반으로 한 심층면접 (Focus Group Interview)
조사기간	9/29~11/19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질적 연구 방법

다. 조사 영역 및 내용

- 면접 질문은 공동체 현황, 구성 배경과 목적, 참여요인, 공동체문화, 성과와 한계, 제언, 기타 등 7개 영역으로 진행함.

【표 4-2】 조사 영역 및 내용

영역	질문
공동체 현황	구성시기, 구성원 수, 활동내용 등
구성 배경과 목적	공동체 구성 배경과 구성 목적, 과정
참여요인	각각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대표적 요인
공동체 문화	- 공동체 나름의 독특한 문화 - 공동체에서 하는 문화 활동이나 문화생산 - 남성들이 모인 혹은 남녀가 섞인 집단과 차이 - 갈등조정 방법
성과와 한계	- 지역 및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 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 - 내부적으로 힘든 요소 - 외부적으로 힘든 요인
제언	부평구에 바라거나 지원을 요청할 내용
기타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라. 응답자 특성

- 지역이라 함은 일상성이 반복되는 공간을 의미함. 따라서 부평 여성이라 함은 부평구 내에 거주하거나 장시간 머물며 활동하고 일, 생활, 삶터로 일상을 영위하는 여성을 뜻함.
- 부평지역 여성공동체 사례 중 사회적 약자 분류인 장애, 한부모, 이주배경, 노동자, 노인, 학부모, 문예활동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지역 여성들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정하려 하였으나 부평에서 찾기 어려웠으며, 발굴된 여성공동체에는 공통으로 이들을 인큐베이팅 한 단체들이 있었음을 확인함.

【표 4-3】 응답자 특성

분류	영역	지역	공동체 명	나이	활동기간	역할
A	이주	부평4동	아이다마을 (아사리아여성문화공동체)	44	6년	회장
				45	7년	회원
				49	8년	회원
				67	15년	회원
B	한부모	부평4동	인천한부모 가족지원센터	51	4년/10년	공동대표
				52	4년/10년	운영위원
				50	4년/10년	운영위원
				56	4년/10년	운영위원
				62	4년/10년	운영위원
C	노동	십정동	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해피타임'	64	9년	대표
				63	9년	운영위원
				61	9년	운영위원
				66	11년	운영위원
				60	10년	운영위원
D	문화	삼산동	부평여성회 문화예술분과	48	5년	지부장
				45	7년	문예팀장
				44	9년	회원
				47	7-8년	회원
E	장애	일신동	종이로 만드는 나의 꿈 세상	48	11년	대표
				63	10년	회원
				60	7-8년	회원
				59	10년	회원
				50	-	회원
F	교육	부개동	공교육을 고민하는	42	4년	대표

【그림 4-1】 여성공동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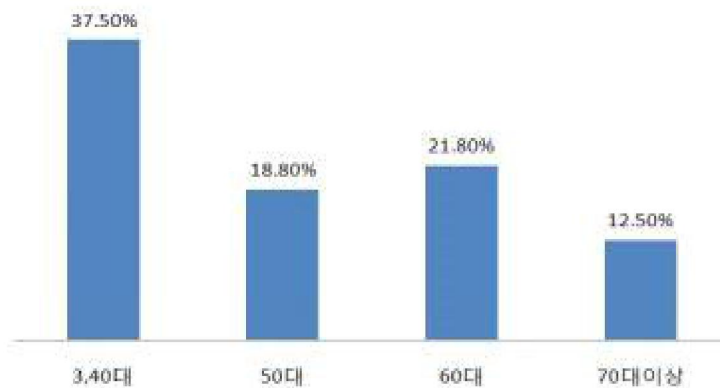
1) 생성 특성

- 여성단체, 복지관, 도서관과 마을운동단체들이 이들 생성의 배경임. A~D 공동체는 여성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당사자조직으로 생성됨. E는 복지관, F는 도서관, G는 마을운동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생성된 공동체들임.

2) 연령 특성

- 응답자 연령은 39세부터 81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3~40대가 12명(37.5%), 50대 6명(18.8%), 60대 9명(28.1%), 70대 이상 4명(12.5%)로 3~40대가 가장 많음.
- 공동체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공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자조모임(F)이 42.3세로 가장 낮고, 부평여성회(D)와 아이다마을(A)이 46세(69세 참가자는 창립멤버로 유일한 고령자임)임.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B)가 54.2세, 종이로 만드는 나의 꿈 세상(E) 59.8세, 해피타임(C) 62세, 행복해(G)가 76.6세로 가장 높음.

【그림 4-2】 참여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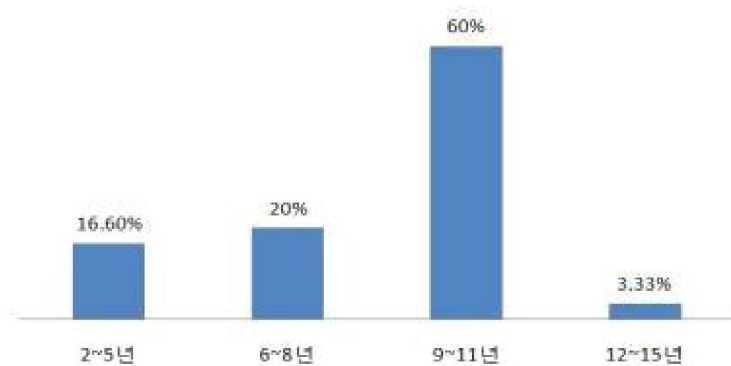


3) 활동기간 특성

○ 응답자의 활동기간은 2년부터 15년까지 분포되어 있음.

- 참가자의 평균 활동기간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B) 10년, 종이로 만드는 나의 꿈 세상(E)과 해피타임(C) 9.6년, 아이다마을(A)과 행복해(G) 9년, 부평여성회(D) 7.3년, 공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자조모임(F) 3.5년 순임. 참가자 전체 평균 활동기간은 7.9년으로 오랫동안 지속해 왔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3】 참여자 활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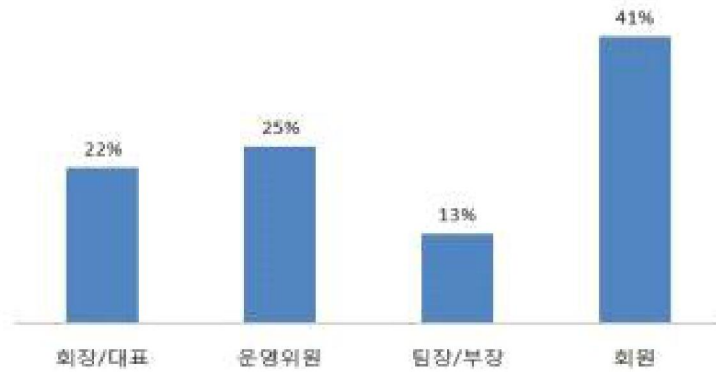


4) 역할 특성

○ 참가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각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음.

- 회장, 혹은 대표, 운영위원이나 팀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부모 자조모임 고리의 경우 대표, 홍보, 총부, 회계 등 각기 임무를 맡고 있음. 평회원의 경우에도 오랜 활동경력을 갖고 있어 공동체에서 실질적인 리더 그룹들이 본 인터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4】 참여자 직위



2. 여성공동체 현황

가. 아이다마을(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Asia Women's Community)(A)

- 아이다마을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조직임. 2008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인천여성의전화의 ‘당사자 운동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업의 지원¹⁹⁾을 받아 각 국가별 자조모임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오다가 2011년 겨울, 5차 지원을 앞두고 국가별 리더들과 협의한 끝에 거액의 지원이 의존성을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받지 않기로 결정함. 2013년 인천시에 비영리단체 등록 하고 이주여성당사자 조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함.
- 비영리단체 출발 때에는 중국, 베트남, 일본,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출신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나 현재는 다수이면서 경험이 많은 필리핀 그룹에 의해 주도됨. 이주여성 인권문제 상담 및 캠페인, 필리핀 전통 문화 계승, 연극, 이중 언어교육, 지역사회 안전, 푸드마켓 등 다양한 활동을 함.
- 특징은 이주여성(엄마)들이 이끌고 있는 아이다마을 안에 이들의 2세 그룹 이주배경청소년조직인 ‘다운(다문화의 미래)’과 아버지모임인 ‘아버지교실’이 있다는 것임. 아이다마을은 자연스럽게 2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계승되고 있음.
- 현재 공간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38년간 보증금 장기상환계획)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월세의 부담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대나무 춤 등 전통공연연습을 위해서는 넓은 연습공간이 필요하여 어려움이 큼.

19) 2008년 9월부터 4년간 한국여성재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며 2014년 인천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에 ‘지글지글 수다방’ 사업으로 참여함.

【표 4-4】 아이다마을(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 현황

영역	응답
공동체 현황	○ 구성시기: 2009년 아이다마을 프로젝트, 2013년 인천광역시 비영리단체등록(대표: 현재인) ○ 구성원수: 초기 15명, 현재 30명 실제 활동 회원 11명(등록회원 100명) ○ 운영: 화비후원금 충당/ 외부네트워크(ODA지원)/ 활동인력(인턴)지원 ○ 활동내용 - 이주여성인권지원, 이중언어교육,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이주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아이다마을 2세 청소년 지원활동 - 2세 청소년 조직 “다운(12~15명)”, 아버지모임 “아버지교실(8명)” 모임 운영
목적	-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함. - 아시아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한국에 안전한 정착을 돕기 위함 - 이주여성/ 다문화주민(이주배경주민)을 수혜자로, 불쌍한 존재로만 보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함.
참여요인	- 스트레스 해소 공간 - 지지받는 친정 같은 공간 -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공간 - 아이들의 소통 공간 - 임파워링 되는 공간 - 어디에도 없는 공간
공동체 문화	○ 공동체의 특별한 문화라면? - 토론해서 다수결을 따르는 문화 - 공동의 문제를 아이다마을 안에서 해결 - 파티(밥을 같이 먹고 노는) - 엄마나라의 문화 계승(잊지 않게 하는 것) ○ 공동체에서 하는 문화 활동이나 문화생산 - 이주문화 연극제 자투리 - 전통춤(아이다 무걸스) ○ 남성들이 모인 혹은 남녀가 섞인 집단과 차이 - 생각의 차이 - 맨스플레인(mans plain) ○ 갈등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 토론을 통해서 해결함.
성과와 한계	○ 성과 - 2세들의 지지와 2세 모임으로 이어짐 - 가족(남편, 2세들)의 동의와 지지 - 지역사회에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평가 - 자부심 ○ 한계 - 서류, 회계 등 행정부분의 어려움 - 운영비 부담 - 공연연습공간의 부족 - 고급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적음 - 이주여성을 수혜대상자로만 보는 정책으로 인한 차별
제언	- 유료상근활동가 및 운영비용(경상비 및 인건비) - 안정된 공간(공연 연습을 위한) - 노후 된 기기 교체(저렴한 임대료 장기유지할 수 있는) - 교육(한국어교육, 인권교육, 법교육, 청소년교육, 한국역사 등 인문학교육) - 임파워먼트 - 아이다마을 같은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
기타	아이다마을이 지속되길 바램

나.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B)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인천여성민우회 한부모 프로그램(2003년)으로부터 출발함. 2007년부터 자조모임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4년에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당사자조직으로 전환함. 단체로부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원받았고 그것이 센터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 한부모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맞는 활동(모임시간)으로 280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임. 한부모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대표, 실무자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를 회원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

【표 4-5】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현황

영역	응답
공동체 현황	○ 구성시기: 2003년 인천여성민우회 소모임 단독비행으로 시작하여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독립 ○ 구성원수: 2014년 11명, 현재 후원회원과 회원 합쳐서 280명 ○ 운영: 회원회비, 프로젝트 ○ 활동내용: 자조모임, 기타 사회에서 받는 지원 후원물품 지원 장학금을 골고루 배분함
목적	- 한부모 당사자 지지집단, 정보교류, 후원물품 나눔
참여요인	- 지지와 정보교류 -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친정 같은 곳 - 지원물품 도움을 얻고자 함 -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고자 함 - 자존감을 높이기 위함 -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감대 형성
공동체 문화	○ 공동체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가? - 구호(당당하게), 모임 전 춤추기 ○ 공동체에서 하는 문화 활동이나 문화생산이 있는가? - 명절 함께 보내기 - 춤테라피, 미술치료, 음악, 명상치료를 했으나 현재는 비용 부족으로 하고 있지 않음 ○ 남성들이 모인 혹은 남녀가 섞인 집단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 목적의 다름으로 인한 불편 -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러 오거나 술을 마시고 책임감이 없음 ○ 갈등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 역할을 나눔. - 회의만 했던 모임을 자유로운 시간으로 역량강화하면서 약간 여유 있게 운영
성과와 한계	○ 성과 - 주변사람들의 지지가 있음(후원회원으로 가입) - 자녀와 원가족의 지지가 있음

영역	응답
	-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지그룹이 있다는 든든함 ○ 한계 - 시간적인 어려움: 경제적 일을 다 하니까 견문을 넓히고 싶어도 시간여유가 없는 점. - 사람이 많아지면서 친밀감이 떨어짐 - 재정적 어려움 -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언	- 10회기 이상 프로그램을 일 년 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음 - 인천시에 한부모 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음 - 유급 상근자 지원 - 한부모센터에서 자녀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싶음 - 사춘기를 지난 성인 자녀들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 프로그램 진행 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 해 줬으면 함
기타	- 정책적 관심: 당사자들과 직접 만난 후 정책 실행 했으면 좋겠음 - 특히 여성 한 부모 가족이 정책적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음

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인천지부 ‘해피타임’(C)

-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설기관인, ‘해피타임’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임. 전국에 12개 지부가 있고 인천지부 해피타임은 2004년 11월에 만들어 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협동조합으로 운영하다가 너무 힘들어 사회적 협동조합 신청하여 선정됨.
-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은 해피타임 가정관리사협회 운영위원들임. 국내 가사노동이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임에 따라 현재 가정관리사는 노동자지위 인정이 안 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자조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해피타임 회원들은 중장년층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여성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은 가사노동 이라고 생각하고 가사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것임.
- 처음에는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같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며 교육훈련을 받아서 현장에 파견됨. 교육이 지식과 정보를 얻고 회원 상호간 신뢰와 친밀성을 갖기 위해 중요하지만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

【표 4-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해피타임’ 현황

영역	응답
공동체 현황	○ 구성시기: 2004년 ○ 구성원 수: 현재 42명 ○ 운영: 출자금(사회적협동조합), 회비 ○ 활동내용: 회원을 모집, 교육 후 실습, 취업알선
목적	- 가정관리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서로 돕기 위함
참여요인	- 즐겁기 때문임 - 가족 같은 분위기, 개인 일까지 얘기할 수 있는 편한 공간 - 어려운 일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의지되는 공간 -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 서로에 대한 지지 -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 같은 경험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어서
공동체 문화	○ 공동체의 특별한 문화라면? - 밥을 같이 먹는 문화 - 노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 공동체에서 하는 문화 활동이나 문화생산 - 매달 정기모임과 수시모임 - 단체여행 ○ 남성들이 모인 혹은 남녀가 섞인 집단과 차이 - 여성들끼리 있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편함 ○ 갈등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 갈등발생이 거의 없음
성과와 한계	○ 성과 - 회원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 비싸도 고객들이 찾음(고객의 인정) - 나이가 들었어도 서로 공감대가 있는 친구가 있으니 성공함 ○ 한계 - 가정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족들에 의한 반대와 몰이해, 고객들의 의심(절도 등) - 건강 등 육체적 노동에 대한 부담(고령) - 회원확보의 어려움 - 협회 유지와 홍보에 대한 어려움
제언	- 효율적 홍보 - 안정된 공간 지원 및 운영 - 가정관리사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인식개선활동
기타	- 건강검진 및 안마의자가 있으면 좋겠음. - 실태조사 후 실질적인 변화 기대

라. 부평여성회 문화예술분과 ‘천둥천하’/ 여성주의연극팀(D)

- 부평여성회는 2009년 인천여성회의 부평지부로 창립된 단체임. 지역여성풀뿌리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월 1회 분과별 모임을 진행하는데

회원육구조사를 토대로 문화매개를 원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분과가 만들어짐. 문화예술분과 안에는 ‘난타팀’ 외에도 ‘에어로빅’, ‘민요팀’ 등 회원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주로 1년 단위로 소멸과 생성을 반복함.

- ‘난타팀’은 2009년 인천여성회 부평지회가 만들어질 때 부평구의 동아리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회원들의 자비로 강습이 이루어지고 부평풍물축제나 지역문화제 등에서 공연을 함. 2014년에 다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단체에서 독립하여 독자활동을 개시했음.
- 2018년 하반기, 여성주의 ‘연극팀’으로 전환 중임. 문예분과는 단체의 한 부분이고 단체의 목적은 여성주의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함이지만 난타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여성주의 연극이 인천에 없는 분야이고 회원들이 문화 활동으로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함. 여성주의 가치와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내고자 함.

【표 4-7】 부평여성회 문화예술분과 ‘천동천하’ / 여성주의연극팀 현황

영역	응답
공동체 현황	○ 구성시기 - 2009년 부평구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난타동아리 ‘천동천하’ 결성 -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천동천하 독자활동 시작 - 2018년 하반기 여성주의 연극팀으로 전환 ○ 구성원 수: 6~8명 ○ 운영: 회비는 그때그때 ○ 활동내용 - 2009년 부평여성회 문예분과 중 난타(천동)팀 구성 - 2010년 지역주민팀과 합류하여 천동천하로 재구성, 부평풍물 축제 참가 - 2011년 5.3항쟁 기념식 공연 - 매년 인천여성회 총회 축제 공연
목적	- 여성주의적 문예활동
참여요인	-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 서로 챙기고 살피는 세심한 마음이 좋아서 - 즐거움 - 문화예술 공연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것이 좋아서 - 관객의 호응이 좋아서 - 나를 드러낼 수 있어서, 실수해도 괜찮아서 - 소속감이 생겨서
공동체 문화	○ 공동체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가? - 매년 열리는 여성회 총회에서 공연(공동체 축제 약 150명 규모) ○ 남성들이 모인 혹은 남녀가 섞인 집단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 조심스러워 지고 피곤함

영역	응답
	- 배려해야 할 분위기, 고려해야 할 점이 생김 -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함 ○ 갈등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 갈등에 대해 말해 본 적 없음
성과와 한계	○ 성과 - 공연에 대한 만족 (결속력 강화) -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됨 -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제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됨 - 구성원 개인과 상호 성장, 가족의 변화 - 사회적 인식이 넓어짐. 공동체의 잠재력을 외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함 - 교육보다 동아리가 접근성이 좋음 ○ 한계 - 일을 하거나 아이 돌봄, 임신 출산 등으로 모이기 어려움 - 공연의 기회가 적음 - 일이 많고 각자 역량의 한계에 다다르면 포기 -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됨 - 남편의 반대: 가족의 케어가 우선 - 일상적인 여성주의 실천이 어려움(문화예술활동에 집중).
제언	- 부평구문화재단 프로젝트 사업비 규모를 늘여야 함 - 활동가 인건비 지원 프로젝트 필요함 - 행정서류와 업무의 간소화 - 프로젝트 사업 기간 조율 필요(단기지원 뿐 아니라 장기지원 고려, 사업기간 조정) -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습공간 필요: 생활문화공간 대여가 어려움 - 부평구문화재단의 공동체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홍보강화(정보제공) - 공동체와 부평구문화재단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 필요 - 참여공동체간 상호교류 필요 - 여성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함
기타	- 부평지역 여성공동체 축제

마. 종이로 만든 나의 꿈 세상(E)

-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한지공예공동체임. 2007년도에 부평복지관에서 ‘한지공예’사업 8회기 진행 후 큰 작품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강사에게 의논하여 동아리를 구성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참가를 원하는 15명으로 동아리를 구성함. 그때 강사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주어서 가능했음. 강사의 도움으로 프로젝트 공모 등에 대한 정보와 기획서 및 정산서 등 작성법 배움. 현재는 대표가 행정업무를 전담함.
- 십여 년 지나오면서 해체될 뻔도 하였지만, 한 달에 만원씩 내서 두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친목으로 버텨옴. 작업공간이 없어서 5년 동안 떠돌면서 남의 가게에서도 모이고 함. 그러다가 현재는 부

평복지관에서 모임을 갖고 있음. ‘압화’ 및 ‘한지공예’ 강사자격증(일 년 4번의 코스를 마치면 주는 수료증)을 따서 복지관 등에 강사로 활동 중.

【표 4-8】 종이로 만든 나의 꿈 세상 현황

영역	응답
공동체 현황	○ 구성시기: 2007년 (대표 이선희) ○ 구성원 수: 초기 15 → 현재 6명 ○ 운영: 월회비, 프로젝트 ○ 활동내용: 부평 풍물축제 ‘체험학습’ 부스 운영(2007년~2016년), 전시회(2013년), 소소한 전시회(복지관 등, 매년), 자폐아 대상의 강습(2017년)
목적	- 한지공예 작품활동 - 서로 위로하고 지지받기 위함 - 장애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전환
참여요인	-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 활동성이 생겨서 - 마음도 더 풍요로워짐 - 성취감과 자부심 - 가족이기 때문에 - 우울감에서 벗어남 - 서로 잘 알기 때문에 편안함
공동체 문화	○ 공동체의 특별한 문화라면? - 밥을 같이 먹는 문화 - 수다 - 새로운 회원가입에 신중,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결정함 - 강사 의뢰 시 순번을 정해서 출강함 - 선택이나 활동을 강요하지 않음. 너무 숨어 있으면 끌어냄 ○ 공동체에서 하는 문화 활동이나 문화생산 - 한지공예작품 등 공예품 - 풍물축제에서 장애여성부스 운영 ○ 남성들이 모인 혹은 남녀가 섞인 집단과 차이 - 모든 게 불편함.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음 ○ 갈등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 터놓고 말함(토론)
성과와 한계	○ 성과 - 강사자격취득 - 작가, 강사로서의 자부심 ○ 한계 - 기관과 일할 때 동원되는 대상이 됨 - 장애여성강사에 대한 편견 - 전시, 판매 공간이 없음. 판로도 없음 - 공동체 운영비용의 부족 - 강습이나 전시 시에 짐을 옮겨줄 자원봉사자 필요 - 건강의 문제
제언	- 기관에 대한 정보, 이용방법안내 등, 구체적인 정보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필요 - 장애인에 대해 예단(경쟁도 안 시켜보고 판단)을 하지 말라 -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만나고 직접 보는 자리를 만들어라

영역	응답
기타	-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홍보가 없음. 공연위주로만 홍보, 그것도 일반인 중심. 장애인에 대한 도움은 없음. 예술화단은 장애인 활인이나 좌석 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 장애인 사업도 해년마다, 공문을 봤던 분들한테만 해당되지 않도록 - 전시설 대여도 일반인 중심. 수급자가 많은 장애인들은 전시설 대여료가 부담됨

바. 공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자조모임 ‘고리’(F)

- ‘고리’는 서로 연결한다는 뜻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부모들이 테드(TED)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첫 번째 모임에서 엄마들끼리 소통문화를 만들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에 대해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음. 평등하지 않은 교육환경을 바꾸어 보고자 학부모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봄. 자연스럽게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자체 페미니즘 강좌도 진행함.
- 지역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여러 번 공모하여 2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공동체의 자율성 침해, 즉, 행사에 동원되거나 사업의 내용변경 요구, 행정절차 및 서류작성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갈등으로 이어져 지금은 쉬면서 기다리는 중임.
- 고리활동을 통해 사회의식도 넓어졌고 정책과 예산의 문제도 알게 됨. 특히 공공 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표 4-9】 공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자조모임 ‘고리’ 현황

영역	응답
공동체 현황	○ 구성시기: 2014년 11월 28일 ○ 구성원 수: 10~13명(운영진 5명 포함) ○ 운영: 회비 연3만원, 프로젝트 ○ 활동내용: 교육(성교육, 페미니즘교육, 자연교육, 미술교육 등), 자체세미나, 가족캠프, 여행
목적	-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 교육에서 사교육을 받고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간에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 - 할 일없이 자신의 능력을 썩히고 있는 엄마들을 위함
참여요인	- 재미있다. -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했다

영역	응답
	-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 배우고 깨우치는 기회가 있다. 책 읽고 토의하는 기쁨 - 생각의 변화가 느껴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고리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 - 일 벌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 고리에서 많이 배워 변화했다
공동체 문화	○ 공동체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가? - 공교육의 문제를 엄마들이 직접 나서서 변화시켜 보고자 함 - 책과 놀이교육이 소통의 도구 - 공동체만의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립성이 강함 -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교육을 기획함 (디베이트교사, 미술가, 독서 지도사 등) - 가족문화 지향: 남성(아버지)을 육아 과정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노력 ○ 공동체에서 하는 문화 활동이나 문화생산이 있는가? - 공교육에서 하지 않는 교육활동 - 페미니즘 책읽기 ○ 남성들이 모인 혹은 남녀가 섞인 집단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 일이 잘 안됨 - 시간대도 안 맞음 ○ 갈등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 기다림
성과와 한계	○ 성과 - 가족, 주변지인들에게 인정받음 - 자부심, 책임감, 소속감, 의무감 생김 - 많이 배우고 변화함. 페미니즘도 스스로 학습하고 사회를 보는 눈이 생김 - 다른 단체 활동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귀한 돈의 쓰임도 파악할 능력 생김 - 정보를 많이 얻게 됨 ○ 한계 - 지원 사업 진행시 가장 어려운 것이 행정업무, 회계와 서류작성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됨 -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말에 쉬지 못하는 피로도도 한몫 함 -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함 - 일과 가사일과 공동체 일을 병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함 - 지자체 기관과 함께 사업을 하려 할 때 한계를 느낌 - 공공기관의 공간의 폐쇄성에 대한 문제
제언	- 행정업무지원 - 사업파트너 관계형성 - 참여단체간 상호소통 공간 필요 - 주민의 현실적 상황에 맞는 장소지원 필요
기타	- 프로젝트공모 활동에 대하여 장점은 돈 걱정 안하고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 단점은 복잡한 행정업무, 감시받는 느낌/ 동원되는 느낌, 비주체적. 자비는 속편하나 비용부담이 생겨 참여자가 적어짐. 공간활용 등 협조를 얻기도 어려움

사. 외골문화회관 한글반 ‘행복해’(G)

- ‘행복해’는 청천동 재개발구역에서 오랫동안 주민운동을 해 온 ‘동네야 놀자’라는 단체에서 문해반으로 운영한 한글반의 모임으로 2009년에 결성됨.
- 이후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을 만들었고 외골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함. 이곳 2층에 주민모임방과 ‘아름인 도서관’ 등이 조성되어 여성노인 한글반 ‘행복해’도 공간을 이전함.
- 희망마을 사업은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소통과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임.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여성노인 한글반 ‘행복해’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공부할 책상을 사가지고 옮겨 왔다고 함.
- 이 한글반 ‘행복해’는 한글공부를 중심으로 하고 각각 문화 활동과 다른 공동체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함. 수업이 끝나면 같이 싸운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여행도 다님. 외골문화회관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함.

【표 4-10】 외골문화회관 한글반 ‘행복해’ 현황

영역	응답
공동체 현황	○ 구성시기: 2009년 ○ 구성원수: 15명~50명 ○ 운영: 월 회비, 기관의 지원 ○ 활동내용: 한글공부, 노래교실, 웃음치료, 단체 수련회
목적	- 한글공부 및 친목
참여요인	- 배움으로 인해 행복해 짐 - 재미있으니까 - 건강해 지니까 - 가족보다 편안함
공동체 문화	○ 공동체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가? - 밥을 같이 먹음 - 자유로움(경로당 이용하지 않음, 젊으면 밥하고 빨래해야 하고,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불편함, 노인정 같 나이도 아님) ○ 공동체에서 하는 문화 활동이나 문화생산이 있는가?

영역	응답
	- 같이 여행가기, 수련회 참여하기 ○ 남성들이 모인 혹은 남녀가 섞인 집단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 할아버지들은 배우러 오지 않음 - 있으면 불편함. 술 문제 등
성과와 한계	○ 성과: 건강해짐, 공부도 할 수 있음 ○ 한계: 돈이 없음, 단체가 가난함
제언	- 소속기관에 경제적 지원필요, 그래야 공동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음. - 더 많은 여성노인들이 공부하러 올수 있도록 홍보
기타	- 핸드폰 사용법 알려줄 사람 필요함 - 오래도록 공동체로 같이 살기 원함

3. 여성공동체 구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가. 여성공동체 구축과 참여

1) 공동체 생성 매개

- 조사된 공동체는 자연발생하기보다 매개체의 도움(인큐베이팅)을 받아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매개체는 여성단체, 복지관, 작은도서관, 마을기업(운동단체)임. 그중에서 여성단체가 가장 많음. 이것은 여성단체가 여성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여성들의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임.

(1) 여성단체

- 조사된 여성공동체 중 여성단체를 매개로 형성된 공동체는 아이다마을(A),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B), 가정관리사협회 해피타임(C), 부평여성회 문화예술분과(D) 4곳임.
 - ‘아이다마을(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은 2007년 인천여성의전화의 이주여성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기업의 지원을 받았음. 2013년 인천여성의전화에서 독립하여 이주여성당사자 공동체로 인천시에 등록함. 공동체 출발 당시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개 국가 출신의 리더들이 함께 참여했으나 현재는 숫자가 많았던 필리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함. 독립하기 전과 달리 스스로에게 많은 책임감과 아이디어가 요구되면서 다른 국가 구성원들은 점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함.
- (A) 점점 사라진 거예요. 물론 문화들도 있지만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때는 선생님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 활동들이 편했었어요.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중략) 근데 독립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로 부딪혔어요. 반대하고 ‘네’하는 과정이 연속이었죠. 필리핀 커뮤니티가 메이저리티(Majority)예요. 멤버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니까. 근데 자기를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점점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3년 인천여성민우회의 한부모자조모임으로부터 시작됨. 민우회에서 한부모 지원 사업을 중지한 이후 흩어지지 않고 2014년 10월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발족함. 발족당시 11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사무실을 얻고 독립함.

- (B) 여성민우회에서 한부모, 그냥 자조모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멤버가 주축이 되어서 (민우회가) 한부모 사업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뿔뿔이 흩어질까 하다가, 아~ 우리가 그냥 흩어질 수 없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 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해피타임’은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설기관으로서 가정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법적, 제도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대한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지역 단위로 조직됨. 인천지부는 올해가 14년째임. IMF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다른 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가사노동이 제일 접근하기 쉬웠다고 함.

- (C) 14년 됐어요. 올봄에 14차 총회를 했어요. 아이엠에프(IMF)지나고 나서 바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에 전국에 11개지부가 있거든요. 부천여노 안산여노 인천여노 수원여노 여노에서 지부처럼 부설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중장년 여성들을 위해서 한국여노에서 할 게 뭐가 있을까? IMF지나고 여성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돈도 없고

여력이 없고 말발도 없고 여성단체가 옛날엔 힘이 없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일 쉬운 일이 가사노동이었어요. 가사 시장이 대기업에서 안 뛰어들어서 없었어요.

- ‘부평여성회 문화예술분과’는 인천여성회의 부평지회로 2009년 창립과 더불어 부평구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난타를 배우고 싶었던 회원 8명이 모여 시작함. 배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강사과정 훈련까지 진행했고 부평구풍물대축제, 인천 5.3 항쟁 기념식 공연 등 지역의 크고 작은 공연에 참여함. 이 공동체는 올해, 난타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여성주의연극으로 전환 중임.

- (D) 저는 남구에 살다가 2008년도에 부평구로 이사 왔어요. 인천여성회 부평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사무국장 동기가 인천여성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번 발굴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가입을 하고 2009년부터 난타 시작을 했어요.

(2) 복지관

- 복지관을 매개로 형성된 공동체는 ‘종이로 만든 나의 꿈 세상’(E) 한 곳임.
- ‘종이로 만든 나의 꿈 세상’은 부평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한 한지공예수업 수료생들로 형성됨. 2007년도에 부평장애인복지관에서 ‘한지공예’사업 8회기 수료 후 참여자들의 요구와 봉사자의 의지로 15명으로 동아리를 구성함. 복지관의 대개의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끝을 내야 해서 더 긴 회기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함. 대신 동아리를 엮어서 요청하면 강사님이 해 주시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임.

- (E) 그때 하는 게 8회기 수업을 했는데 한지를 8회기 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조그만

작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큰 작품도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작품을 하고 말기에는 그게 아쉬웠죠. 그리고 처음 담당해주셨던 선생님이 더 많은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게 연계가 되서는 할 수가 없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 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끝내야 했어요. 올해는 한지를 했으면 다음 해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동아리를 엮어보면 자기가 힘을 써보겠다고 해서 동아리를 하겠느냐고 여쭙보니 열다섯 분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3) 작은 도서관

- 작은 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공동체는 공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자조모임 ‘고리’(F) 한 곳임.
- 공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자조모임 ‘고리’는 지역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것임. 2014년 TED 강연을 통해 공교육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문제의식을 갖게 된 후 각자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활동을 기획하게 됨.
- (F) 처음에 저희가 도서관에 봉사를 했어요. 제주도 많으시고 저도 도서 수업도 하고 선생님도 보드게임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활동들을 전혀 이렇게 뭐랄까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전혀 보상이 없고 그리고 또 엄마들도 집에서 뭘 하고 싶은데 그런 통로가 없고 (중략) 우리가 수업도 같이하고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면 같이 분배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이런 생각들로 처음에는 만들었죠.

(4) 마을운동단체

- 마을운동단체를 매개로 형성된 공동체는 ‘행복해’(G) 한 곳임.
- ‘행복해’는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²⁰⁾이 운영하는 퇴골문화회관(청천

20) 퇴골문화회관 쉼표 카페는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점령한다고. 2014. 01.27 인천IN 동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한글교실의 이름임. 퇴골문화회관은 2011년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공모에서 공동체 공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작됨. 어머니 한글반은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반만 운영하던 중 이주여성과 동행한 할머니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고 함.

- (G) 우선 장님이 눈 뜨잖아요. 재밌다 못해 행복하다니까요. 모르다가 여기 와서 많이 배웠잖아요. 노래교실, 민요, 웃음치료 그렇게 배워요.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절을 다녀요. 불교 스님이 좋은 책을 주셔서 (집에) 갖다 놓긴 했는데 이십년이 됐는데 (책장에)꼭 찼어요. 글을 모르니까 내버려 뒀어요. 나이를 먹고 펴 보니까 이십년 된 책이 얼마나 좋은지 이십년 전에 쓴 책이 지금 현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써 놓은 거야.

2) 공동체 참여 동기

- 지역공동체는 지역 안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공동의 공간, 비슷한 경험, 비슷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공간의 인간관계망을 의미함. 특히 여성들은 지역운동, 풀뿌리운동, 마을 만들기 활동 등 마을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음.
- 동아리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이후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친구를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단체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등임.
- 본 연구에 의하면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 새로운 일에 대한 욕망, 사회에의 기여, 그리고 친밀함에 기댄 신뢰를 통하여 새로이 사회에 접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공사의 구분을 넘어,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삶의 반경을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욕망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요소임을 알게 함.

네야 모여서 놀자-주민생활 속으로 들어간 퇴골문화회관

http://m.incheonin.com/news/news_view.php?sq=23641&m_no=&sec

(1) 헤어지기 아쉬워서

- 여성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각 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모임을 지속하게 된 계기를 말함. 여성단체를 매개한 4개의 공동체 중 세 곳의 공동체가 응답함.
-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는 한국어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다른 모임들에 가입하게 되었고 긴 시간동안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음. 장애여성공동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조차도 여성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지 않았던 시절, 공예프로그램에서 만난 여성들이 헤어지지 않고 교육을 더 받기를 원하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음. 한부모공동체 역시 여성단체 자조모임에서 해체하지 않고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고 지속함.
- 중첩성을 가진 소수자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행됨을 볼 수 있음.
 - (A) 그때 한국어 공부했잖아요? 여성의전화에서. 아이다마을만 알고 있고 다른 이주여성들도 있는데 자기들 각자 모임 하는 거 모르고, 나중에 아이다 있다가 너 혹시 다마얀 가입했냐고.
 - (E) 2007년도에 최초사업이 공예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파생된 동아리구요. 거기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했구요.
 - (E) 여기 땅 팔 때부터 J선생님하고 초창기 멤버고 N씨 세 사람이 초창기 멤버....., (복지관에) 여성장애인(으로) 제가 세 번째 등록한 거라고 했어요.
 - (B) 여성민우회에서 한부모 그냥 자조모임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뽀뽀이 흩어질까 하다가 아~ 우리가 그냥 흩어질 수 없다.

(2) 친구 따라서

- 여성공동체 참여 동기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친구의 권유, 친구를 따

라서 등 친구가 매개가 되는 경우임. 이는 여성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수단으로 친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역’은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어서 친구는 지지자로, 공감자로, 정보전달자로서 중요한 공동체 구성요소임.

- (A) 여기 아이다마을은 핫라인 같이 한 2010년인가요? 그때서 친구들 만나갖고 한국 어교실도 배웠고 거기서 여러가지.
- (A) 그땐 또 다마양도 있고 친구들도 그거 회원도 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답에 한번 끝났다가 또 다시 왔어요. 지금. 나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옛날 친구들이 그래서 돌아오는 거지요.
- (B)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고 인천에 살면서도. J씨하고 알고지내다가 J씨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많이 힘들다. 저도 한부모 여성가장이거든요. 자원봉사하면서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 (C) 일 별로 안하고 살다가 친구소개로 왔는데 벌써 9년차가 되었네요.
- (C) 나이 먹으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는 친구가 여기 그런 데가 있는데 해 볼거냐고, 소개해 보겠다고. 그러자고 하니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 (C) 나이가 들어서 일을 찾으려고 하니가 없는 거예요, 식당은 너무 힘들고. 그러던 차에 전화번호 알려줘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 (E) 저는 J선생님을 알아서 멤버가 되었는데 오라해서 중간에 들어와서 그 전 고생은 모르고 처음으로 이런 걸 접해서 재미있게 했어요.
- (E) 오전에 텔레마케터 일 년 하고 쉬었어요. 쉬다가 끝나고 동아리가 활성화되면서 부터 한번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은 꽤 오랜 친구예요. 자꾸 오라고 해서 오게 돼서 한 7~8년 됐나?
- (F)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공동체, 저는 뭐 여성, 이런 교육 이런 것도 몰랐고 항상 생각만 하고 있다가 M언니가 이런 거 있다 해서.

(3) 새로운 일을 해 보고 싶어서

○ 여성들의 생애주기 중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변화의 지점이 있음. 육아에 매일 때도 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자신의 변화를 위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함. 응답자는 자영업을 하면서 집과 가게만을 자신의 모든 공간으로 인지하고 살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좀 더 공간으로 나오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됨. 해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선뜻 뛰어 들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함.

- (C)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서 세상구경을 하고 싶더라고요. 가게하고 집하고 췌 바퀴 도는 생활을 하다 보니 애들도 어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그 당시 인천시가 환승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집에서 차로 가게 집 이렇게 살다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세상구경도 하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

○ 공동체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스스로 공부하고 처음으로 강사에 도전하는 모험도 가능한 공간임. 사회에서는 펼쳐진 교육의 장에 소비자로서만 존재해 왔지만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 상호 성장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됨.

- (F) 몸이 막 덜덜덜 떨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이 강의를 들겠다고 소식지 보고 신청을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이 지인 분들이 오시고 했으니까 떨리시긴 했을 거예요. 처음 하셨으니까.

(4) 단체 활동을 해 보고 싶어서

○ 지역 여성단체의 강좌에 참여 했다가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접하고 눈뜨기

시작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도서관 또한 인근 지역의 여성들이 아이들과 많이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엄마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공간임.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공동의 관심사로 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됨.

- (D) 학교에 강좌 들으러 갔다가 (중략) 호기심이 들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성시민단체 같이 하고 싶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속에서 문화 활동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 (D) 단체가 있는데 한번 발굴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8년에 가입하고 2009년부터 난타를 시작했어요.
- (D) 도서관 활동만 하고 싶은데 동네사람들 들여다봐야 하고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중략) 자꾸 그런 걸 얘기 하니깐 이 단체 뭐지? 그렇게 차차 젓어 들어가게 된 거 같아요.
- (F) 고리를 처음 하셨던 선생님들하고 도서관에서 알게 되어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러다 알게 되었는데 고리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일년 뒤에 모임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임에 들어오게 되었고.
- (F) 너무너무 재밌게 모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 대학 교양학으로 여성학을 들었는데 그 책을 다시 읽으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선별도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일하신 분 들이구요. 책도 잘 고르시고 이러니까 다들 이 자리가 다들 즐겁고 자유롭고 얻어가는 자리가 된 거죠.

(5) 돈을 벌고 싶어서

- 노동자 이익보호 공동체는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목적이 될 것임. 하지만 다른 공동체에서도 자신들의 활동이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임.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제적 능력

도 개발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 (F) 우리가 수업도 같이하고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면 같이 분배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이런 생각들로 처음에는 만들었죠. 그래서 누구는 너는 무슨 재주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업을 나갈 수 없으니 우리끼리 먼저 수업을 한번 해보자
- (E) (강사가) 동아리를 엮어보면 자기가 힘을 써보겠다고 해서 동아리를 하시겠느냐고 여쭙보니 열다섯 분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이분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고 복지관에서 도와준 것이 있고 구청에서 풍물축제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게 있다더라 하고 우수동아리신청하면 거기서 또 얼마간의 돈이 생긴다 해서 먼저 기획서를 먼저 만들어주셨어요.
- (C)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남편 모르게 빚이 있었고 여기 오면서 남편 모르게 해결했고, 생활비는 써야 하는데 남편은 정해놓은 것만 주고 안주니까. 막내가 사춘기 때 속을 썩었는데 그 돈을 갚느니라 천만 원도 저한테는 큰돈이거든요. 남편이 돈 벌어서 뭐 하느냐고. 조금씩 갚고 나중에는 적금을 들어서 탔는데 너무 좋은 거야.

3) 공동체 운영과 목적

- 여성공동체의 구성목적은 인권보호와 사회적 편견 및 차별해소, 자조집단 형성,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하기 위해서로 조사됨. 초기에는 교육이나 취미 활동, 친목도모로 접촉하게 되었어도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가족과 주변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 사회변화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인권 보호와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 A공동체의 목적 중 ‘스스로’라는 당사자 주체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중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출신 여성

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비주체적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함. 이주여성에 대한 불편한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 폭력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고 그 지점에서 자부심도 강함.

- (A) 아이다마율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하고 나면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해요. 이주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잘 하는구나.
- D공동체는 난타 팀을 운영하면서는 여성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음. 하지만 오랫동안 신뢰를 통해 관계를 쌓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통해 여성주의 가치와 문화의 접점을 만들어 내려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자 함. 공동체의 갈등은 공동체의 유지, 혹은 변화의 중요한 요소임.
- (D) 그런 과정도 겪었고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오는 과정도 거쳤고 그러면서 연극을 한번 올려보자 했고 거기에 살이 붙고 올해부터 여성주의 연극 처음에는 보리 가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을 잡아보니 어려워질 것도 같고 다시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는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서 우리 안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문화가 만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 E공동체는 한지공예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강사활동,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소수자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목적도 변화해 감.
- (E)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학습축제 부스

가 열다섯 개 있는데 장애인은 저희 한 그룹밖에 없어요. 신경을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화장실 될 수 있으면 그 편의시설 하나 봐 달라는 거. 저희만 화장실 앞 현관 앞에서도 하고요. 귀찮은 존재들이죠.

- F공동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그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시작한 것임. 그리고 교육 현실과 더불어 여성들의 현실, 즉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사회화를 중요한 한축으로 생각함.

- (F) 공교육, 과연 아이들의 교육에 이 사교육과 있고 없과의 차이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게 좋겠어? 우리 달란트를 어떻게 뭉칠까? 했던 것이었거든요. 활동과 그리고 엄마들, 엄마들이 오전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면서 할 게 없어서 혼자 일하고 싶어도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능력을 서로 공유할까 해서 뭉쳤던 것이예요.

(2) 자조집단 형성

- 자조집단의 형성은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현실에서 공감대를 기반으로 상호 부조를 위함임. 자조집단은 당사자라는 단일 정체성으로 구성되며 친밀감과 신뢰, 정보교류, 지식과 지혜의 나눔, 서로의 돌봄, 협동으로 짜여 있음. 이익집단이 될 수도 있음.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에 의한 자조모임은 외부로부터 형식적이고 수동적이거나 수혜적 위치에 놓이기도 함. 따라서 기득권 조직의 동원이나 수혜, 배려의 대상이 되어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함. 하지만 당사자성이라는 당위와 주체성이 집단의 힘으로 발휘될 때 자조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변화를 추구하는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함.
- 공동체가 없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혼자서 해결해야 했지만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제일 든든한 곳이 되었다고 함. 특히 제일 가까이 있고 가장 의지가 되어야 할 가족인 남편에게는 말을 할 수 없는 반면 아이다공동체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임을 알 수 있음.

- (A) 옛날에는 그냥 내가 혼자 느낌이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 있으니까 좀 뭐더라 자신감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있으니까. 말할 때는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내 남편까지도 안 말하니까 한국에서 여기 가족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밖에 어디 갈 때 여기 제일 뭐야 든든하기 느낌 여기에서.
- 단체에서 지원하면서 참여했던 모임에서 스스로 만든 자조모임으로 변화하면서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자긍심도 생기고 어렵지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책임감도 생겨 회비도 내고 스스로 꾸려가고 있음.
- (B) 자조모임인데 자조모임을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당사자들이니까 그 심정을 잘 알아서 그래서 더 발전되는 것 같아요. 초창기 여성민우회 대표님이나 우리를 담당해주신 분들은 당사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해주시고 분이 되셔서 받아서 우리 애들도 잘 키워서 사회 구성원의 하나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다, 다 어렵지만 이 사업이 어려워요. 다 아이들 키우고 여성가장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갖고 사무실 얻고 지금까지 굉장히 허덕허덕 하면서 달려왔어요.
-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협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화시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당시 구성원들의 뜻보다는 매개단체의 영향이 컸고 그 결과 현재는 협동조합을 유지만 할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임.

- (c) 박근혜정부가 협동조합 만들라고 바람을 넣을 때였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일 년 몇 개월 하다가 사회적 기업보다 협동조합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정부 일자리를 얻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자고 해서 일 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중략) 처음에는 될 거 같이 기대에 부풀어갖고 만들었어요. 전국에 11개지부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명수라도 있는데 열 닷 명밖에 안 되는 곳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하기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안 들겠다고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다 만들었어요. (중략)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바우처 사업을 받아서 할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생산적인 것은 못해서 오래 유지하기 힘들 거 같아요.

(3) 능력 개발과 사회 활동

- 공동체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에 참여를 통해 그러한 기회가 마련되기도 함. C공동체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필수로 받고 현장에 파견되는 방식 이라면 A, E의 경우는 강습을 받거나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와서 각각의 모임 안에서 활동을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됨. 특히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강사의 위치로 변화하기도 하고 아마추어 공연자에서 프로공연자로, 문화 전수자로 정체성이 변화 성장하며 임파워링 됨.

- (A) 아이다 활동가들이 인제 그거를 아이다 마을을 위해서 수익금 들어올 수 있게 컨덴싱(Condensing)하기로 하고 있고, 전통춤으로 시작했어요. 필리핀 전통춤인데 옛날처럼 그런 거 보다는 그 민족들이랑 했던 춤들이 같이 하는 것을 한꺼번에 만들어 갖고 한 거예요. (중략) 필리핀에서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다 아티스트예요. ‘아이다 무겔스’한테 공연을 해서 펀딩을 하는 거죠.
- (C) 신입 교육하고 인천여성노동자회협회는 뭐를 하는 곳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원하

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교육을 시켜서 수준이 되어야 고객들이 돈이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교육해서, 회원의 자세와 실습도 고객 집에 가서 직접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원가입이 되는 거죠.

- (E)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랑 그룹에 와서 한 번 수업 했고 저희는 그런 식 수업을 하고 싶어 해요.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도 공모하는데 가서 기획서 내서 공모 당선되면 그런 거 찾아 다니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4) 정보 교류와 친목

○ 여성들에게 공동체는 각종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임. 연령이 낮은 세대는 인터넷 등 디지털 도구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4~50대 이상은 여전히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됨.

- (B) 지지받고 싶고 정보도 교류하고 싶고 살기 힘들니까 힘을 얻고 싶어서, 다른 데서는 얘기 못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 (F) 내 일상을 사는 거고 그냥 엄마로 사는 거로 아줌마로 사는 건데 여기 나오면 책을 접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해보고 나도 뭔가 배우고 깨우치고 그런 것이 좋아서 나왔고 더군다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다 엄마들이니까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거 뭐 여행도 했고, 캠핑도 했고, 우리끼리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것이 좋았고 그런 것이 다 좋은 것이예요.
- (G) 저는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우리 동네 다 이사 가 가지고 개발되서 갔어.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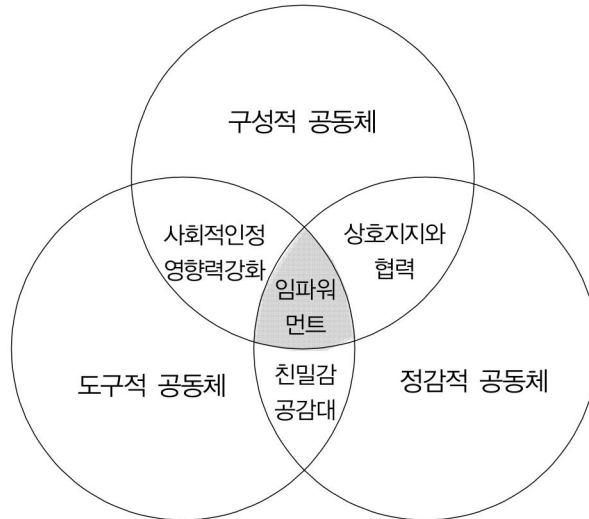
○ 여성공동체들은 매개체의 도움(여성단체, 복지관, 도서관, 마을운동단체

등)을 받아 생성되고, 여성단체를 매개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음. 공동체 참여 동기는 프로그램 이후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친구를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단체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등임. 운영목적은 인권보호와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자조집단 형성,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하기 위해서로 나타 남.

- 공동체의 참여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 특히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여성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목적을 공유하는 ‘도구적 성격’,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포함되는 ‘정감적 성격’, 새로이 목적이나 정체성이 구성되는 ‘도구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임파워먼트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역량(권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임.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력은 남성들이 독점하고, 여성들은 남성의 지배와 종속을 받음. 따라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는 남성에게 집중된 권력-사회적 힘을 여성과 여성 집단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 내적 힘이나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증진하는 과정임.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정보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지지와 협력도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큰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게 되고, 여기서 창출되는 문화 혹은 문화적 수요활동은 이들이 문화자본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작용함. 공동체 활동은 여성들에게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서’를 통해 실제로 경제자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음. ‘해피타임’이 대표적인 사례임.

나. 여성공동체 지속 요인

【그림 4-5】 여성공동체 임파워먼트 요소



1) 개인적(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한 자존감 향상

- 공동체의 지속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와 지지받을 때, 구성원들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음. 또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으로 무대를 만들고 기획하고 가르치고 하는 행위를 통해 주체적 경험을 하게 된 것 또한 공동체 지속참여 요인임.

- (B)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 참가를 하고 같이 모임을 하다보면 힘이 나거든요. 직장생활에 지쳐 있고, 십년이 넘다보니까는 어떨 때는 얼굴만 봐도 즐겁거든요. (중략) 그리고 아이들 키는 것도 다 알고, 또 다른 저의 발견도 되고 성장 센터가 성장도 되지만 저는 끈끈한 모임 그걸 더 추구하고 싶어요.

- (A) (남편이) 못나가게 했는데 그때 아이다대표님이 같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도 일부러 와서 얘기 했는데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남편에게 설득하게. (남편이)만약 (아이다마을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내가)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겼죠.
- (D) 너무 좋았죠. 한번 인생에 있어서 매번 보기만 하던 것을 경험해 본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공연까지 했어요.
- (D) 어디서 내가 쉽게 할 수 없었던 공연 경험, 다양한 경험을 했거든요. 내 삶에서 뮤지컬도 해보고 우리 안에서는 난타 등을 편안하게 경험해보고 서로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과정에서 인정받다 보니까 자존감이 쑥 큰 거 같아요. 쑥 올라간 한편 으로는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 (F) 안 그래도 저희끼리 물었어요. 도대체 이걸 왜 우리가 하고 있지? 잠깐 잠깐의 재미난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의 재미, 또 선생님이 해주는 다른 책의 재미 보드의 재미, 선생님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에서 유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 모르는 동네 마을 분들이 처음 그림을 접하면서 기쁨. 그리고 저처럼 책을 보면서 토의, 토의하는 기쁨 그런걸 보면서 와! 우리가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게 맞아 그나마 생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애. (중략) “왜 열심히 이려고 다녀?” 우리끼리 매일 얘기해요. 한동네니까.

2) 공동체(조직적) 임파워먼트를 통한 결속력 강화

- 공동체 차원에서 구성원들은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지와 위로를 얻고 편안함과 보살핌을 경험하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됨. 이 과정은 함께 밥을 먹는 행위로 나타나며 한식구라는 공감대와 신뢰, 친밀성이 형성됨. 친밀성은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것임. 소수자들에게 있어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되는 차별과 편견의 메시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친밀성은 공감대와 이해, 그리고 지지가 교류되는 관계에서 획득됨. 친밀성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줄 지지집단의 접촉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 회복 등,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A) 우리 행복해요. 여기 오면 언니들은 동생들은 아이들도 활동하고 같이 밥 먹고, 혼자 월세(내는 것은) 힘들어요. 외로워요. 힘이 없어요. 어디 갈 데 없어요. 우리가 바보 되요. 갈 데가 없잖아요. 다문화(센터는) 안 가잖아요.
- (B) 지지 받고 싶고 정보도 교류하고 싶고 살기 힘들니까 힘을 얻고 싶어서, 다른 데서는 얘기 못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공감대 형성되니까 이런 데 와서 풀어놓고 그런 얘기는 친정 얼마나 누구한테나 자존심 상해서 말하기 힘든 데 같은 공간에서 얘기하다 보면 입장이 같으니까 얘기가 술술 나오는 거 같아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엄머~ 언니 분해 해주고 (같이 화 내주고) 들어주고 하는 게 제가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친정 같은 곳 그런 마음으로 그때 모임을 가졌었죠.
- (C) 협회 가족같이 몸담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좋아요. 힘들거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 관계없는 개인 일까지 얘기할 수 있는 편한 공간.
- (C) 하나로 딱 묶여 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가지고 이 안에서 바깥에 고객님들하고 사이에 힘든 일들을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울타리가 돼 주는 거잖아요. 어디가도 이런 정은 없죠. 돈 버는 일은 다른데서 하고 단체 모임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하죠) 분위기가 좋다고.
- (E) 떠돌이는 5년 했고요. 5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한) 원동력은 음식? 밥. 밥. 힘. 뭐냐 하면 두 달에 한번은 돈을 모아서 무조건 밥을 먹었어요. 자조모임처럼 해가지고 계모임처럼. 친목모임 한 달에 만원씩 내서 무조건 먹으로 가자. 영화도 보고 남의 가게에 가서 하고 그게 5년 동안 이어 오게 된 끈끈한, 식구가 밥 식(食)자에 입구(口)자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다 보니까 식구가 됐어요.

3) 사회적 임파워먼트 형성을 통한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

(1) 구성되는 공동체 정체성

○ 모든 공동체에서 조직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소수자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일종의 낙인이 될 수 있고 정체성이 드러날 수도 있음. 그럼에도 공동체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정치적 주체로서 사회적 부조리와 부정의에 저항하는 힘을 가진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A) 자기들(아이들)도 다문화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이름도 ‘다온’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은 한국인은 싫어하든 말든 어쩔 수가 없어서 이미 다문화라는 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 (A) (중략) 옆에서도 국가에서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지원 받는 거 없다고 하면 안 믿어요. 힘든데 왜 하냐고 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자기들 위해서 이주여성들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다른 데서는 볼 수는 없다고 하고.
- (D) 동아리 활동이 경력단절여성이 구청이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문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아리 활동 하다보니까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알게 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차츰 차츰 주변에다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해요.
- (E) 작품을 하고 싶어도 작품비용을 마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모내고 기획서 내서 틈틈이 나오는 활동비로 작품을 쪼개서 만들어서 했고요. 2013년도에 전시회 한번 했구요. 소소한 전시회는 계속 가졌었어요. 복지관에서 전시도 하고 일 년 성과물이라고 해서 내 놓기도 하고 2014년 공모에 당선되어서 저희들끼리 동아리 자체 전시회를 했죠. 작년에는 공모에 당선돼서 자폐아이를 찾아다니면서 활동도 했구요.
- (F) 우리끼리 이런 걸 만드는구나! 사회성 있게 활동해서 아는 아이 키우던 엄마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늘 고민해요.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 우리아이가 계속 부족해 보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달란트를 돌아가면서 아이들 지도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 (F) 우리 애한테나 남편한테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생각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부평구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걸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고, 이런 생각도 알게 되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돈이 쓰이는구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지원 복지가 있구나를 알게 됐고, 또 저는 그런 거를 모르는 엄마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2) 정치적 주체화

- 이주여성 정책에 대한 시혜적 성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저항하며, 모국의 문화계승과 2세로 전수되는 공동체 활동, 이주여성 인권보호활동 등을 통해 정치주체로서 변화해가고 있음. 개인적으로는 공예수업의 수강생으로부터 출발해서 강사와 작가로 정체성이 변화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도 공예를 배우는 것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전환함. 이것은 정치적 각성을 거쳐 정치적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이 들어도 사회변화를 위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 그래서 연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 감.

- (A)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 생각에는 어렸을 적부터 계속 활동들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아이다마을에서 뭐하고 있는지. (중략) 아이들이 자기들 인권에 대해 관심도 많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난번에 2016년인가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하면 아동 학대인데 그 부모님이 자기 여섯 살인가 아이 죽였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거 SNS에서 보면서 (중략) 자기들도 아동학대 캠페인, (중략) 우리는 왜 그렇게 당해야 하나라고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이 활동을 해요. 아이다마을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들도(이) 설명을 다해요. “엄마 나 학

교에서 설명해요”

- (E)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주취인 곳에 가서 보면 벌써 배려하는 거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나 재단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던지 이 분들(장애인)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가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가서보면 ‘아, 우리가 이 분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지금 실정으로 봐선 예전 관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죠.
- (D) ‘얼마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니까,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힘들어도 왜 활동을 하나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받을 못 빼니까 외면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하는구나 하고(생각해요).
- (F) 각자들 바쁘면서도 이걸 놓지 않고 이걸 하겠다고 꾸준한 책임감들. 뿌듯하거든요. ‘아 이렇게 해 냈구나’ 뿌듯함. 내년에도 할래 말래,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소속되는 소속감, 책임감 의무감이 생긴? 와~. 아이 키우는 엄마고 이러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뭔가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희는 너무 뿌듯했고요. 오히려 주변 다른 단체 공동체 모임들이 말도 안 되는 활동을 한다면 화가 날 정도로 욕하는 것까지 보이게끔 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참 그래도 마을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내 눈이 뵈구나! 이 귀한 돈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이것까지 지적할 수 있구나.

4) 소결

- 여성공동체의 지속요인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한 자존감 향상, 공동체 임파워먼트 - 지지집단, 민주적인 의사결정, 갈등해결 노력 - 를 통한 결속력 강화,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통한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 와 정치적 주체화 등으로 나타남.
- 여성공동체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성공동체 내부에 문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여성들은 개인이 가진 특성들이 다양하고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존중과 지지, 공감과 이해 등을 통해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거나, 때로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등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문화는 ‘차이에 기반 하는 공동체’ 혹은 ‘정체성의 공동체’,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창출하는 공동체라는 문화다양성의 공동체의 개념과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이들은 심리적(지지와 지원, 가족적 유대감), 조직적(공동체의 결속력 강화), 사회적(개인 및 공동체의 정치주체화)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가부장제적 위계구조를 해체할 대안의 권력, ‘함께하는 권력’임.
- 공동체 활동은 부평여성현황에서 나타나는 우울감 및 낮은 행복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됨을 알 수 있음.

다. 여성공동체 장애 요인

1) 개인 차원

- 조사된 여성공동체에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대해 가족들의 반대가 가장 큰 장애요인임. 특히 육아나 가사 등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대로인 채로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경우, 이때 일과 가사노동의 양립은 여성들을 말도 안 되는 중노동의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성들의 가족 밖의 일, 즉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간의 투여는 가족들에게서 지지를 얻기 어려움. 그밖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생기는 갈등, 소수자들이 활동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임.

(1) 일, 가정, 공동체 활동의 충돌

○ 공동체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가치를 두고 활동을 할 때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고 육아와 가사, 그리고 직장 일까지 부담인 채로 공동체의 일이 많아질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함. 사적 영역의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도 방식이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질 때 개인의 책임으로 느끼고 있음.

- (A) 처음에는 (못나가게) 했죠. 못나가게 했는데 그때 아이다대표님이 같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 (C) 가족들한테 “나 이거 파출부, 가정 가사도우미 파출부하려고 해” 그러면 가족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출부) 얘기를 하면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식당 주방, 홀 서빙, 이런 거는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남의 밑에 가서(와) 남의 집 가서 한다, 이 차이 밖에 없어요.
- (D) 대부분 남편이랑 많이 부딪히는데 저는 이 사람도 아니까 부딪힘은 없었는데 주말마다 나가고 애들도 두고 나가니까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하죠. (그러면) 외면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는 하죠.
- (D) 천정엄마가 하는 소리예요. 돈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소리 안했는데.
- (F) 그 선생님과 제가 가장 많이 부딪혔는데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하는 각자 잘하는 걸 하자. 내가 지금 막 새로운 걸 배운 다기 보다 나한테 있는 달란트를 잘 쓰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 항상 자꾸 배워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돌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반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한다고 우긴 적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 한 것도 있죠.

- (F) 이런 것들이 분업이 되어 있었지만 나름 바빴단 말이에요. 저희는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아이도 케어 돈도 벌어야 하고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Y씨는 자기가 몰라서 자책을 하지만 저도 3년 하다가 4년째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저 이제 쉬겠어요 하고 쉬니까 이분들이 힘들잖아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못하니까 그만큼 분배를 해야 하나까 저는 저 나름대로 미안하더라고요.

2) 공동체 차원

- 공동체 차원의 요소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구조가 없다는 것과 재정이 부족하여 운영비나 인건비 마련이 어렵고 외부의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공연기회의 부족 등을 이야기 함. 공동체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이 필수 요건이 되는데 지역여성공동체들의 경우 공간 부족과 재정의 어려움은 같은 문제로 보임. 외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의 재정확보가 관건임.
- 공동체를 남성과 연대하지 못한 (혹은 안 하는) 이유들 중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목적이 달라서, 불편해서, 맨스플레인(가르치려 드는 행위)해서 등 가부장적 요소들에 대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임.

(1) 갈등해결시스템 부재

- 어느 조직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갈등은 필연적인 요소임.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변화가 결정될 것임. 참여자들은 공동체가 합의한 규칙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 일이 몇몇에게 편중되는 문제 등 어려움들을 겪을 때 마땅히 해결할 구조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말함.

- (D) 시간을 많이 내면 되는데 다들 직장생활도 하고 가족도 있고, 다들 한 만큼 하겠다고 시간을 내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지켜줬다면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작업들을 놓치고 가고 그러니까 그걸 끝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고 버거워서..
- (D) 그거를 저희가 난타 평가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하는데요. 먼저 온 사람들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와 그러고 늦게라도 오면 와~하면서 부딪히는 것을 피했어요. 좋게 좋게 가자 이렇게만 하고 으쌰 으쌰 해서 공연까지만 가자. 부딪히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구나.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다시 하고 싶다고 그 친구들은 하고 싶어 그래요. 왜냐하면 부딪힘이 없었으니까 싸우고 그랬으면 힘들어서 못했을 거예요.
- (D)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갖고 연습만 하지 말고 쏫볼 키고 진실 그런 걸해야 되나?
- (F)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 동안에도 작게 작게는 갈등이 있었죠. 회의 할 때 의견 충돌이 나거나 하면 이런 건 그 자리에서 다 터놓고 얘기하면서 해결을 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맞고 생각이 좋아서 모인 모임이니까 얘기 하면서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이해 할 수 있고 그렇게 굴러 갔었는데 이번 경우는 아직 풀리지는 않았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에도 요정도 수준으로는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그냥 굴러는 갔었지. (옆 사람) 근데 굴러는 갔었지. 근데 지금처럼 안 나오지는~

(2) 재정 부족

- 기본적으로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비용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음. 활동의 동력은 재정이지만 재정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임. 또한 외부의 지원을 받아도 사업비 규모가 작아서 한계를 느끼고 있음.

- (A) 힘든 것은 없어요. 우리 행복해요. 여기 오면 언니들은 동생들은 아이들도 활동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데) 혼자 월세(내는 것은) 힘들어요. 저기 우리, 컨덴싱(condensing) 한 달에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대표님 혼자 자기 돈으로 가끔 돈 벌고 돈 내는 거 보면 마음 아파요. 나도 도와줘야 되고.
- (B)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시간도 안 맞고 합창도 했었지? 강사 섭외도 있고 필요한데 경비가 없어서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거죠. 정말 회원들이 원하는 문화를 주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겠다..... 그렇죠,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 (B) 다문화는 지원이 많지만 한부모 사업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중략) 후원회원도 언제까지 해줄지 중단될 지 걱정이에요. 1~2년 했으면 되지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처음 영업할 때 일 년만 발바닥으로 뛰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요.
- (D) 부평구문화재단은 금액 자체가 적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인천문화재단 공모사업이 크거든요. 거기 공모사업을 잡고 가려고 하죠.
- (E) 그렇게 부평구청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 나가는 것은 9년을 했잖아요. 삼십만 원씩 물품을 다 살 수 없어서 나머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물품을 사면은 어쩔 수 없이 체험비를 받아야 해요. 체험비로 충당하는데 이런 식 마이너스예요.

(3) 공간 부족

-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 됨. 하나는 고정된 활동 공간(사무실, 연습실)에 대한 욕구로, 이것은 공동체 재정부족의 문제에서 기인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 공간에 대한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임. 특히 이주여성 당사자 공동체의 경우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울 수 있음. 인터뷰에 나오진 않았지만 필리핀 전통춤 공연연습에 사용되는 긴 대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곳을 빌려 쓸 수가 없어서 비싼 월세를 주고 사용해

야 한다고 함. 전시를 위해서는 인사동을 주로 찾게 된다고 함. 공연연습, 전시 등 부평구 여성공동체들의 문화생산물들이 부평에 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A) 이 공간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지원받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지만 지난번에(한국여성재단에서) 방문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우리도 올리려고 해요. 이사할 생각인데 월세 말고 전세로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B) 서울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인천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천이 이혼율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생긴다면 저희 센터가 주가 되어서 상담도 하고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 (E) 십년이란 세월동안 풍파도 있었고 해체 될 뻔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여보자 연계해 보자 부실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떠돌이 생활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정예부대처럼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 (F) 역시나 운영비용이 제일 문제여서 풀뿌리센터도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긴 했지만 저희 목표는 사무실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공간이 있으면 엄마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여기서 쓰고 저희는 임대료를 받고 엄마들은 이익을 얻고 자신감 얻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공간도 나중에는 만들기를 원했었죠. 그 계획이 잘 안됐는데 나중에는 장기적인 얘기도 하게 되었어요.
- (E) 저희 공예 같은 경우 전시를 하게 되면 인사동을 주요 전시장소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공예인들의 메카이기 때문에 인사동에서 전시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긴 하는데 그다음에 알아주는 데가 예술회관, 인천, 서울, 성남같이 시에서 하는 행사예요. 구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에서 했다하면 쳐 주지 않는 거죠. 아트센터가 그 정도로 닫혀 있다는 거거든요.
- (D) 탭댄스 장소를 빌려 줬으면 했을 텐데 작은 도서관에서 해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민원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민요도 거기서 하려다가 민원 들어올 거 같다고 해서 잔치마당에서 대여비 내고 했어요. 그나마 부평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단체가 그곳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대관하기가 어렵죠. (중략) 방음까

지 되어 있는 공간이면 좋죠. 곳곳에 있어야 하는데 많이 없죠. 은근히 거리가 있어서 멀게 느껴지니까 있어야 하죠. 거기서 문화 활동을 쉽지는 않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열려 있는 게 부평생활문화센터예요. 우수동아리를 지원하는데, 학습동아리 위주로 해줘요.

(4) 남성과 소수자성

- 여성공동체의 구성원의 성(性) 비율에 있어서 당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여성들만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임. 가족활동을 지향하거나(A, B, F), 딱히 성별을 규정하지 않은(C, D, E, F) 공동체들도 남성은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만 참여함.
-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남. 하나는 남성들의 성차별적 가부장성의 문제임.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보다는 여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목적’을 갖고 참여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술을 마시거나 여성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가르치려든다거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중요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로 볼 수 있음. 또 다른 이유는 남성구성원들과 활동의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봄. 여성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주로 아이들과 함께 하거나 가사노동시간을 피해서 구성되는 반면 남성들은 그 시간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임.
- (A) 차이가 있죠. 남자랑 섞이는 커뮤니티는 남자들은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여자들은 남들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해요. 페미니즘과 이런 게. 그래서 남성들과 부딪히면 안 돼요. 섞일 수가 없어요. 여성인권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여성 인권이라 하면 여성들만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뭐 휴먼, 남자도 같이 있지만 또 다른 얘기에요. (중략)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아이다마을에서도 아버지교실 했어

요. 근데 물론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린 외국사람. 여긴 한국이야. 자기네 생각에는 자기는 알아. 내가 남자잖아. 항상 그렇게 해요.

- (B) 남자들은 목적도 따로 있고, 남자들은 술 먹어서 안 되더라고. 남자들은 공부를 안 해요. 여자 만나려고 그러고. 여기를 오면 여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자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예 차단을 시키거든요.
- (D) 형식을 다 차려야 할 것 같고, 성적인 발언 예민하게 해야 하잖아요. 우리끼리 우리 생각 못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성희롱 발언일 수 있잖아요. 남성이 있는 모임에서는 머릿속에서 거르고 얘기해야 하고 그분들도 요즘 분위기 감지해서 그런지 조심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남성이 있다면 피곤함이 더하더라고요 배려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참지, 분위기 상하지 않게. 여성회 안에서는 바로 얘기해도 되는데 요번에 미투 분위기에서 어떤 남성분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가? 달라진 건 있나 보죠.
- (E) 남자들 모임 똑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이 나간 것은 아니고 언니 네 분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 언니와 나는 중도 장애인이에요. 저는 다치고 나서 나왔는데 혼합동아리처럼 다닌 데를 몇 번을 갔는데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남자들 목소리 왈왈 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도 왈왈 거리지만 저는 불편한 거 언니들과 오래 어울리다가 보다가 거기 나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내 패턴이 아닌 것 같아요.
- (F) 솔직히 일적으로 되지가 않고, 여기는 낮에 모이고 하는데,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참여만 해줘도 너무 감사한데 어차피 가족인데 엄마하고 아이가 보내는 시간 많은데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가족이 엄마랑 아이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아빠가 끼어서 그게 잘 안됐는데 원하는 건데 잘 안됐던 건데

3) 사회적 차원

-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서는 이들 여성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는 차별적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또한 공공

기관에서는 지원을 조건으로 공동체 고유의 활동을 침해하기도 함. 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잘 드러나게 할 기회나 정보도 부족함. 여성이면서 소수자인 중첩적 차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들 여성공동체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투쟁성을 획득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전환시키기도 함.

(1) 이주여성, 한부모, 장애여성, 이혼여성, 여성의 사회활동 등에 대한 편견

○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이미 젠더, 경제, 인종의 배제로 이루어진 낙인임. 이주민을 위한 선심성 다문화정책에 참여하면 할수록 당당한 시민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의존적 존재로 비추어지는 사회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 한부모 역시 개인의 선택이 낙인이 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사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사회활동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음. 이러한 자기인식은 사회적 조건을 바꾸려는 동력으로 이어짐.

- (A) 다문화 가족이라서 불쌍하고 잘 못 살았다. 먹을 것 없고 그래서 그거 아이가 그거 얘기하면서 울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센터사업에 공짜 무료 이런 거 반대예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외국 갈 수 있고 돈 벌수 있는데 왜 그거를 하냐고. 이주 여성들한테 필요한 거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직업이에요. 다문화여성들, 이주여성들은 마흔 다섯이만 되면 회사 같은 거도 못 다녀요. 어디로 가요? 식당 식당일 얼마나 힘들어요? 청소. 또 어떤 회사는 국적 취득했어도 얼굴만 보면 ‘아 외국인이다’라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 (B) 우리 사회에 한부모들이 많지만 나서지 않잖아요. 국회에서 결정한다거나 인원이 많은 단체 그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저희는 저희 각자는 다 다룰 수 있겠지만 운영위원들 오래 이혼은 선택일 뿐이죠. 사람들이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혼은 내 선택이고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더 편한 게 더 많아요,

- (E) 내가 나가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아는 곳이라고는 자폐아 기관, 신체발달 기관, 이런 데만 다니니까 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수업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서 안하시게 되는 거죠. (중략) 편의시설은 저희한테는 제한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아무 곳이나 갈 수는 없죠. 계단이 있으면 이런 사람 못가고. (중략)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보다 몸 불편한 분 모셔다가 하는 건 더 힘들니까 차라리 그냥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하니까 (중략) 지금도 수업을 나가보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해서 저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공간만 선택 하는 거죠. 그리고 편견이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들이 가르쳐봐야 뭘 얼마나 가르치겠어.

(2) 공공기관에서 지원 시 자율성 침해

-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공동체가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지원처의 사업에 동원되고 사업의 내용을 바꾸게 하는 등 공동체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경험을 하게 됨. 또한 지원받은 사업이 목적대로 잘 수행 되도록 파트너 관계로 함께 하기보다는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 불편함. 외부지원에서 공동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 함. 그래서 사업을 무료로 하면 구성원들의 마음은 편하고 창의적인 기획도 시행 가능하지만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렵고 지원을 받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음을 호소함.

- (F) 관리하셨던 분이 개인적 주관에 의해서. 우리가 딴 사업을 자기 실적으로 달라고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의 실적을 남겨서 동아리를 자기 실적이기를 바래요. 저희는 싫다고 했고 안주더라고요.
- (F) 거기서 요구사항하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 하고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의 품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저희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중략) 그런 거를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 (중략) 한번 지원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중략) 정말 좋은 제안이였지만 우리가 또 하고 싶었던 색깔이 있던 거예요.
- (F) 이거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가장 큰 초점은 돈을 제대로 써야 하는데 지원은 나오고 제대로 쓸려면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하려는 게 아니고 못되게 쓰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략) 자꾸 자꾸 단속하는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는 건지 자기들 성과를 내려고 하면서 안 하는 것 못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게 자꾸 생겼지? 2년 전에 처음 지원 받아 쓸 때 옆에서 봐도 이 정도는 아닌데 갈수록 조건이 뭐가 계속 늘어나요.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 (A) 창립부터 ○○○○상담소도 저희가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활동하는 사람들 책임감,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상담소하면 매일 근무해야 하고 몇 개월간 당분간 돈도 못 받고, 우리는 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자주 올 때는 자주오고 여기에 자주 오지만 저녁에 주로 오니까 일반 사무실하고 달라요. 자정이나 1시에 집에 가는 사람들이예요.

(3) 활동의 비가시화

- 홍보나 정보력이 부족하고 네트워킹에 대한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공동체의 활동의 성과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여김.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을 함. 공동체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들 간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 기관간의 협업도 잘 안되어서 장애인은 장애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활동이 어려움을 지적함.
- (D) 저도 부평에서 단체 활동을 하니까 그 존재를 알고 공모사업이나 부평구민한테 문화적인 것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부평구문화재단이 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고 공연장, 공연만 하는 곳인 줄 알아요. 문화단체를 도울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에게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동아리가 있어도 연결해 주는 중간매체나 관 이런 게 없으니까 공유가

안 돼요. (중략) 모든 지원이 행정적 성과주의, 단기적 문제 지속,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나 관 연결 중간매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 (E) 복지관에서 강사를 내보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서로 연결된 복지관으로 나가는 거고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센터도 장애 쪽 관련된 곳이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 거기서 거기. 일반인 강사를 원하면 자기가 나가서 뛰어들어서 해야 하는데 다들 수급자들이고 그만한 용기도 없고
- (E) 인사동까지 끌고 가서 하느니. 문화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 정책 홍보만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일반인들이랑 비장애인들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똑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4) 소결

- 여성공동체 지속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는 개인차원에서는 일, 가정, 공동체 활동의 충돌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갈등해결시스템의 부재, 재정 및 공간부족, 남성과 소수자성의 문제가 나타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수자 여성에 대한 편견, 공공기관 지원 시의 자율성 침해, 생산문화의 가시화 통로의 부재 등으로 나타남. 개인적으로는 사적존재로 살기를 강요하는 가부장제 문화와 공동체 및 사회적 장애요인은 문화자본 접근성의 제한으로, 이 역시 가부장제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소수자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이 겪는 문제임.
- 권력은 여성주의의 중요한 주제임. 이는 억압, 차별, 편견해소를 목표로 하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주제임. 여성에게 가부장제는 권력이 남성에 집중되어, 남성=공적존재(권력집중), 여성=사적존재(권력배제)라는 성역할 이분법을 만드는 핵심 권력구조임. 이분화 된 성역할은 여성들의 공적활동인 공동체 활동에 장애가 됨. 가족 내 노동이 여성만의 역할일 때 여성공동체 활동의 지속에 어려움이 됨. 또한 사적존재로 훈련된 여성들은

갈등해결을 공적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부장제에서 남성에 집중된 자원들은 여성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때문에 여성공동체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이는 여성공동체들이 폐쇄적으로 보이도록 하며, 비가시화는 또다시 지원 및 자원의 부족으로 악순환 됨. 비가시화는 여성들이 문화생산주체가 아닌 소비주체로 부각하는 원인이기도 함.
-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일반’, ‘일상’을 대표함. 남성 내 다양한 위계 및 서열, 그로인한 차별과 배제로 인한 남성소수자의 형성은 인정 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 집단 자체를 소수자로 볼 수는 없음. 여성공동체들은 남성들과의 교류에 불편함을 보임. 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위계와 그 원인이자 결과인 성적대상화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본 연구는 가부장제가 집단 위계와 이로 인한 차별, 편견, 억압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보여 줌.

라. 공동체 대응전략

- 여성공동체 활동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의 전략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지지하거나 독려하면서 결속력을 강화하여 충돌이 일어나도 넘어서는 강력한 지지집단으로 성장함.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집단이 되면서 거꾸로 가족과 공동체 안의 갈등과 억압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됨. 주체로서의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소임.

1) 개인차원 : 친밀성 강화

- 여성공동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친밀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가족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족의 지지를 배경으로 주변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열심히 지속하는 방

식을 선택함.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존감 회복 및 사회활동에 대한 확신 등으로 변화함.

- (A) (못하게 하면) 난 이혼한다고 해요. 집안에 가족구성원이 다섯 명이잖아요. 아이들 셋하고 나하고, 남편은 혼자예요 그럼. 네 명이 다 아이다마을 가는데 이혼하겠어요? 자기 혼자 손해예요. 자기 아들딸들도 아이다(마을에) 와있는데.
- (B) 예전에 저 같은 경우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엄머~ 언니 분해! 라고 편들어주는 게 제가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친정 같은 곳 그런 마음으로 그때 모임을 가졌었죠.
- (C) 얼마 전에는 얘기 했어. 불편한 할머니를 도와 드리는 일이야.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애들이 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땃땃하게 얘기는 안 해주고 그거는 손자들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애들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 (D) 남편이 자꾸 밖으로만 돈다고, 여성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그랬었죠. 지금은 준여성회회원이에요. 물론 여성을 이해하는 남성이고 같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감하고 대상자, 본인이 나한테 지기 싫어서 찾아서 같이 떠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았던 것을 남편한테 전달하지 않는데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즐겨 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되고 있고 호응해주고 응원하고 있고..
- (E)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하겠어? 신세한탄도 하고 허물없이 수다 떨고 그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어딘가 소속되면 사람이 활동성이 생겨서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세수도 안하고 그런데 여기 나오면 세수라도 하고 자기도 가꾸고 웃으면서. 한사람이 다운되어 있으면 끌어주는 힘이 있고.

2) 공동체 차원

(1)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만들기

○ 공동체 안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가짐으로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함. 토론하고 협력하여 결론을 만들어 내고,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함. 또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갈등이 일어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과를 통해서 미루거나 외부로 끌고 나가지 않고 해결함.

- (A) 우리는 메이저리티(Majority)라고 생각해요. 많은 수로. 말이 통하는 사람. 만약에 내가 반대다, 근데 세 명이 동의다 따라야죠. 메이저리티(Majority),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요. 그러면 서로 이해해야 해요. 포럼 여러 사람이 토론해요. 해결 했죠. 울고 난리 났죠. 자기도 자존심 있으니까. 나는 언닌데, 여기 언니들이긴 말든 나이가 많아도 잘못 건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요. 계속 그냥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요.
- (B) 인제 각자 맡은 역할만 하자. 다 하지 말고. 역할을 나누고 회의만 했던 것을 한번은 우리끼리 그냥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간으로 역량강화, 센터 회의를 진행하고, 역량강화하면서 약간 여유 있게 가는 거죠. 꼭 회의가 우선이 아니라. 각자 분담을 맡고.
- (E) 누군가를 들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반수 동의 안하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성향을 알잖아요.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가(서) 세 번만 건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가서 물어 물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별로더라, 라는 의견이 있으면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반대해도 영입을 안 해요. 근데 두 명이 너무 반대를 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2) 세대 간 연결

○ A 공동체는 유일하게 공동체의 문화를 2세대로 전수하고 있었음. 10년의 기간 동안 엄마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험한 아이들이 청소년 세

대로 변화함. 엄마들의 활동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적 가족으로 A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의 미래를 기획하기도 함. A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들 2세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음.

- (A) 아이다마율은 지난 번 미팅했어요. 이 공간 때문에. 여성재단이(의) 보증금만(도) 이야기도 하고 멤버들 다 모여서(이야기 했어요). 멤버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얘기 했는데 (중략)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다마율을 운영할까). 아이다를 포기할까 (했더니) 왜 포기하니? 엄마들이 없으면 자기들(아이들)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 했어요). M하고 K, H가 무슨 소리 한 줄 알아요? 나중에 엄마들이 다 노인이 되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아이다 마을 이사하고 각자 방을 만든대요. 세 명이 끝까지 아이다마을 이어간다고 (중략) 아이들, 2세대 때문이라도 이 아이다마을이 없으면 각자 자기들만 살아요.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되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어렸을 적부터 같이 했던 활동들이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같이 하던 것이 끊어져요. 자기들도 엄마들에 대해서 잊는 거예요.
- (A) 아이들 모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 ‘다마얀’이니까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리틀 다마얀’이라고 해요. 올해 아이들 다 커갔고 중학생 되잖아요. 다 자기네들 중학생 되어서 리틀 다마얀으로 부르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유치하다고 제발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천청소년회’이라고 했는데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 지역만 가입할 수 있겠다, 다른 지역 친구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다운(다문화가 온다)’이라고 해요.

(3) 지역사회와의 인정과 영향력 강화

- 중첩적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공동체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함. 이주여성들은 지역경찰서와 연계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문제들에 관련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거꾸로 치안봉사단 활

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도 함. 또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게 됨.

- (A) 외국인 어~ 뭐지 외국인 안전. 왜냐면 여기가 부평역에서는 외국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때 사람이 많잖아요. 어떨 때 외국 사람들 술 먹고 싸우고 외국인 치안 봉사단 치안.
- (C) 월등 하죠 저희가. 가정이 편하면 애들도 편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상생활도 밝게 하고 이런 것처럼 다른 영리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토가 요금은 안 깎아 준다 그 대신 일은 열심히 한다.
- (F) 공연섭외가 오니까요, 출연료도 받고, 인정을 받는구나, 전문팀이 아니더라고 여성단체 동아리인데도 보기가 좋았어. 이렇게 해서 섭외가 오고 교육청에서도 공연을 했거든요. (중략) 마을축제 동 축제 이런저런 동네에서 하는 축제 거기에서 공연비는 안 받더라도 동네주민이잖아요. 동네주민이 올라오는 초청을 받죠. 그거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해요.
- (F)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집안에서 있다가 보니까 잠재적 능력을 몰랐는데 잠재적 능력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동아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교육에 대해서 사교육 시키는 학부모들 만나면 사교육 얘기 하거든요.

3) 사회적 차원

(1) 인식개선-문화다양성 차원에서

- 사회적 차원의 대응전략은 당사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나서는 것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자발적,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임. 그렇게 되기 위해 인권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며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해 알리는 등 적극 해결해 나감.

- (A) 다문화센터에 가면 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아무 것도 안하고 편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지킴성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따라만 해야 되잖아요 나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원하는 거 애기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우리 목소리 낼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데 다문화는 공부하다가 집에 가. 여기는 브레인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바보 돼, 바보. 여기는 우리가 스스로 따라가고 해야 해.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목소리 없다. 위 캔 두 아이디어!(We can do idea!), 여기 아이디어마을은 인권지킴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 (A) 인권교육도 하고 서로 이주여성들이 몰라가지고 이 아이다 마을 어떤 공간인지 설명하고 이 아이다 마을활동이 어떤 건지 우리 같은 여성들은 왜 필요한 건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부딪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 리허설을 했어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인제 뭐 가정폭력 뭐 그런 활동했어요.
- (B) 인식개선을 해서 어떤 결정되는 사업이나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한부모 사업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엔 저도 한부모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교육도 받고 역량강화가 된 이후로는 나는 한부모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당당하게 한 부모가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 (E) 참여했다는 것, 알렸다는 거.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학습축제 부스가 열다섯 개 있는데 장애인은 저희 한 그룹밖에 없어요. 신경을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화장실 될 수 있으면 그 편의시설 하나 봐 달라는 거. 저희만 화장실 앞 현관 앞에서도 하고요. 귀찮은 존재들이죠.
- (D) 그게 차오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여성주의가 어렵잖아요. 그런 과정도 겪었고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오는 과정도 거쳤고 그러면서 연극을 한번 올려보자 했고 거기에 살이 붙고 올해부터 여성주의 연극 처음에는 보러 가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을 잡아보니 어려워질 것도 같고 다시 모여서 얘기 하다 보니까 가는 길이 만들어 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서 우리 안에서 여성주의가치와 문화가 만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2) 정책적 지원확대 및 강화

-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은 재정, 행정, 홍보, 열린 공간, 연대 등으로 답함. 그 중 재정, 행정업무 지원이나 홍보는 결국 재정부족의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열린 공간에 대한 요구나 네트워킹 등을 통한 연대는 이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확장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재정적 지원

- 여성공동체들에게 중요한 동력인 재정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함. 능력의 개발과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말했듯이 A공동체는 전통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공연을 올려 펀딩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빠른 시간 내에 확보되기 어려운 요소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두 가지 분야로 정리해 볼 수 있음. 하나는 지원금을 늘려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돈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지원 사업 예산 중 운영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임. 민간기금들의 경우 사업비 예산안에 운영비의 비율을 넣어 사업 진행시 필요한 일일 노무비와 사무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함²¹⁾.

- (D) 여성들이,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집안에서 있다가 보니까 잠재적 능력을 몰랐는데 잠재적 능력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동아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중략) 인식도 넓어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동아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움직일 수 있게 지원금이 많아져야 해요. 본인 돈으로 못써요. 애들한테 먼저 써야 하니까. 지원금을 받기는 해도 내 돈 더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일하는 거야.
- (D) 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활동비 지원도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21) 한국여성재단

활동가 지원을 해서 (중략) 활동가지원을 월급으로 받고 활동을 하더라고. 인천은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서울은 여러 가지로 활동가 지원비를 주지만 인천은 프로그램 지원비만 주고 인건비 지원이 없죠. 인천시에 활동가 지원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행정업무지원

-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적영역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와 다르지 않음. 여성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위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의 행정의 과정에 접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임. 실제 행정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D) 사업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서류작업 근거 내야하니까요. 팍팍한 일정 소화 급하게 하다 보니 행정업무 서류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 (F) 그런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좁은 시간에 막 해야 하고, 그런 애길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행정적인 회계 서류작업 업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잘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게 없었으면 갔을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 홍보

- 문화공연이나 공모사업이나 자문 등 중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모사업들의 경우 공동체가 참여하고 싶어도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큰 단체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게 현실임. 여성들의 경우 스스로 정보력이 약하다고 생각함. 이런 조건들이 차별을 유지시키는 기제가 된다고 여감.
- (E) 저는 매년 사업 들어가서 봐요. 무슨, 무슨 재단, 여성복지부 써서 내서 사업비를 딸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공모, 공문으로 우리 이러 이러한 거 있으니까 지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곳이 있으면 하는데 가서 보는데 (부평구)문화재단은

장애인에 관해서는 없어요. (중략) 팸플릿이라도 돌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단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팸플릿, 이런 것도 장애인을 위한거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거 없이 한 줄씩 올라오는 거야. 매일매일 체크 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F) 공동체 지원사 업이나 공동체 이게 오히려 연대나 그룹이 커진데에서 더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지원 사업이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지금도 주변 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 보면, 저분들은 이것까지 가져가시려 하는구나. 눈뜨고 보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구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누구나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광고가 있어야 하는데 정보력이 없으면서 여성분들은 정보력이 없어요. 남자들 젊은 분들 알아서 챙겨요. 참 여자들이 모르는 데, 결국 그분들 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배워서 하려고 하면 큰 단체들이 다 잡고 있어요. 결국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아쉬움이 많았던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 (D) 강사 섭외 등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전문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번에 연극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알아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인들 알아서 찾긴 했는데 그런 중간단계가 있으면 각자 동아리에서 그려내는 것이 좀 더 디테일하고 프로페셔널 할 것 같아요.

○ 열린 문화 공간

- 마을단위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아이들과 함께 시끄러워도 괜찮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함.
- (F) 저는 우리가 쿵쾅쿵쾅 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은 제약이 많아요. 도서관은 먹는 거, 시끄러운 게 안되고, 시간제약이 많아요. 어떤 엄마는 오고 싶는데 복직을 해야 하니까 모임에 오고 싶는데 모임을 일요일에 하고 싶지만 토요일 내부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나가서 커피숍이라도 가서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면 공간이 '토, 일'까지

보장이 된다면 우리도 프로그램을 만약에 짤다면 아이들과 아빠들도 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엄마들끼리만 하고 끝나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저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D) 체육시설만 생길게 아니라 여성단체들을 위한 공동체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각동에 노인센터가 생기듯이 주민센터가 여성들이 공동체 할 수 있는 센터들이 열린다면 체육시설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여성들이 쓸 공간을 준 다면요. 오픈 돼서, 우리는 너무 잘할 거 같아요.

(3) 연대활동

- 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넘어 주변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음. 그것이 결국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억압, 폭력을 없애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또한 지역 공동체들과 함께 연대활동을 해야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여성공동체들도 각자의 문화생산물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여김.

- (A) 우리는 이 지역만 활동하지 말자. 주변 동네에도, 우리 아는 동생들도 왜냐면 한국에 와서도 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여기 인천 아닌 다른 동네에도 알려주자. 자기들도 밖에서 일하고 자기들 인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만나고 어려움 이야기 하고, 아이다 마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주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이 사는 곳에 가서 만났고, 자기들 어려운거 이야기하고 아이다 마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미션을 했어요.
- (D) 예전에 생각했었거든요 언니랑 저랑 문화바람 시민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성회하고 조인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너지 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개인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생각들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폭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체끼리 싸우는 거 마냥 무언가가 축제 품앗이 얼굴 한번 비치는 거? 왜 이런 식으로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요.

- (D) 지역에서 여성들의 축제 문예공연으로 다양한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막연하게 여성들이 함께하는 놀이 자리는 생각해 봤는데 각 여성 단체가 사람은 적고 할 일은 많아서 어우러질 수는 없지만 공연으로 축제를 만들어 낸다면 하고 싶네요. 지역에서 여성동아리들이 모여서 어우러짐 마당을 만들어 간다면 좋겠어요.

4) 소결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친밀성의 강화를 통해, 공동체 차원에서는 민주적 의사소통 만들기, 세대 간 전수, 지역사회 인정과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지원확대 및 강화, 연대활동을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대응전략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 친밀성의 강화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는 사회적 장애요인에 대응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고, 사회적 인정과 영향력의 행사는 이들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가족 등 사적영역의 활동도 인정받도록 함.
- 여성공동체들은 고유의 문화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에도 관심과 참여를 보임. 이런 점에서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볼 수 있음. 또한 여성들의 문화를 통해 가부장제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수평적 연대인 ‘친밀감의 장’으로 바꿔내는 문화다양성의 실현과 실천의 공간임. 이들은 구성원 간, 세대 간,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더불어 행사하는 권력(power with)’을 구성 중에 있음. 이러한 집단적인 임파워먼트의 과정은 여성주의 권력의 개념이 지배와 통제의 의미로서의 권력개념을 새롭게 재구성 할 가능성을 보여줌. 이는 문화다양성에서 ‘권력’의 의미와 소수자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 여성공동체는 여성들의 문화형성의 공간이자, 권력형성의 공간이고 저항의 공간이기도 함.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공동체들은 여성이면서 소수자, 즉 중첩되는 소수자성을 가진 집단임. 소수자는 권력에 저항하는 집단으로 사

회적 약자와 차별을 가짐. 이들 공동체들은 상호지지와 지원, 친밀감을 통해 저항의 권력을 구성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 함.

- 소수자성이 ‘저항주체’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자 정체성이라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핵심은 차별과 억압을 만들어내는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소수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편견과 차별개선이라는 가치적 차원, 공간 및 재정, 업무지원, 가시화 등 행정적 차원, 네트워크의 구축과 세력화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은 ‘저항주체로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함. 사업주체로서의 부평구문화재단이 아니라 ‘사업주체형성의 장’을 여는 매개자로서의 재단이 되어야 할 것임.

Chapter V

2018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적 함의
3. 정책 제언

V. 요약 및 정책 제안

1. 연구 요약

- 연구의 배경은 부평지역이 여성친화도시이며, 여성 인구가 많고(50.3%) 여성 1인 가구, 여성 노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자녀 수가 많다는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라는 점과 지역사회 활동에서 여성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비가시화 된 점, 여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함.
- 연구의 목적은 여성공동체 조사를 통해 이들 문화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화가 문화다양성에서 함의하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지원정책을 파악하고자 함.

가. 선행연구

- 문화다양성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본질이자 인권임. 개인 및 집단이 가지는 정체성이나 문화 그 자체가 그대로 존중되고 장려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에 입각함. 다문화주의가 이질적인 집단들이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 섞여 잘 살아갈 것인가를 지향하는 동화주의에 기반 한다면, 문화다양성은 차이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 함.
- 문화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생활양식을 포함하고, 문화적 차이는 지역, 나이, 소득, 성, 장애, 인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 국민국가 혹은 인종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온정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국가 혹은 사회 내부의 개인들의 문화적 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휘될 수 있음.
- 문화다양성의 목표는 ‘기본적인 인권, 문화민주주의의 증진, 모든 소수자들

의 동등한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 이는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는 또 다른 목적과 결합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문화다양성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의 발굴과 지원에 정책이 집중됨. 조사연구 사업은 실행 및 예산에서 비중이 아주 낮고 일회성으로 그쳐 일관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등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이 전담부서가 모든 부처 및 부서간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연계와 연대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별로 행해지는 문화다양성 인식증진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지역들이 확산되고 지역주민들을 주체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그러나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자의 폭이 제한적이라 정주민 혹은 다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야 하고, 위계적 사회구조가 재생산하는 차별과 편견의 측면에 대한 정책적 접근, 주류지배문화·권력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포함해야 함.
- 여성공동체 정의에서는 여성의 임파워먼트라는 요소와 연관한 연구들이 있음. 임파워먼트는 제3세계의 개발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가장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 하에서의 개발로 이해됨. 임파워먼트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임.
- 여성공동체는 여성들을 임파워먼트 시키는 장으로 기능함.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는 남성지배와 종속을 해체하고 평등한 자원과 권력의 배분을 위해 여성자신과 여성 집단의 내적 힘과 정치세력화를 증진하는 과정임.
- 여성공동체는 목적과 유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의 실체 등을 통해 '도구적 공동체', '구성적 공동체', '정감적 공동체'로 분류함. 본 연구에서 '여성공동체'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도구적, 구성적, 정감적인 역할의 공동체 모두를 포괄함.
- 부평구 문화다양성을 위한 여성공동체 연구로서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정

책의 조사·연구사업의 부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부평구 문화다양성 정책의 선진화라는 의미를 가진.

- 여성공동체에 대한 본 연구는 여성주의(Feminism)라는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특별히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 연구에서 새로운 위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여성주의는 사회에 내재한 위계 중 ‘젠더권력관계’에 집중함.
- 지역주민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라는 관점이 필요함. 주류 지배문화·권력의 해체는 그것에 저항하는 주체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임. 본 연구는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굴, 결정, 참여의 과정에서 여성공동체들이 참여하고, 요구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함.

나. 부평지역 여성현황

- 학력과 경제활동이 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여성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으며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으나 가난한 여성이 많음. 젊은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참여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또한 여성의 투표율과 공직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자원봉사, 문화 활동에 적극적이며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음.
- 여성들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들은 행복감보다는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낌. 여성과 남성이 행복감을 느끼는 연령대가 반대로 나타남. 여성은 10대에 행복감을 가장 덜 느끼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복감이 높아짐. 여성의 우울감 경험이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음. 여성들은 사회참여나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음. 특히 여성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성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부평구는 ‘함께+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문화와 이웃이 함께 하는 부평이라는 정책과제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구민들의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풀뿌리여성 활동을 지원하는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여성 동아리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대여사업을 진행하며, 풀뿌리 여성의 문화 공동체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는 유일함.

- 그러나 문화·교육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취미교육이나 여가지원 프로그램임. 프로그램 종료 후 공동체 형성과 유지를 위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적 삶과 창조적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열린 소통광장’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과 ‘주민주도형 지역문화형성’이라는 과제를 세우고 있음. 관련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많은 문화 프로그램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동아리 지원도 하고 있음. 이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음. 특히 2018년에는 무지개다리사업으로 주민들과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전문가를 지향하는 교육이거나, 취미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여성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성은 발견되지 않음.

다. 여성공동체 심층면접 결과

- 조사된 여성공동체들은 매개체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고, 여성단체를 매개로 한 경우가 많음. 공동체 참여 동기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친구를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등임. 운영목적은 인권보호와 사회적 편견 및 차별해소, 자조집단 형성,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로 나타남.
- 공동체의 참여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함. 여성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도구적 성격’, ‘정감적 성격’, ‘구성

적 성격'을 모두 가짐.

- 여성공동체의 지속요인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한 자존감 향상, 공동체 임파워먼트를 통한 결속력 강화,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통한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와 정치주체화 등으로 나타남.
- 여성공동체들이 지속가능요인은 여성공동체 내부에 문화다양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여성들은 상호존중과 지지, 공감과 이해 등을 통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등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공동체 지속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일, 가정, 공동체 활동의 충돌, 갈등해결시스템의 부재, 재정 및 공간부족, 편견, 공공기관 지원 과정의 자율성 침해, 생산문화의 가치화 통로의 부재 등으로 나타남. 여성=사적존재, 문화자본=기득권의 구조는 가부장제에 기인함. 가부장제는 남성=공적존재(권력 집중), 여성=사적존재(권력배제)라는 성역할 이분법을 만드는 핵심 권력구조임.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친밀성의 강화, 공동체적으로는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만들기, 세대 간 전수,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 인정과 영향력의 행사,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지원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 연대활동 등임. 이러한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대응전략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여성공동체들은 고유의 문화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 형성의 주체로 나타남. 또한 여성공동체 문화들은 수평적 연대인 '친밀감의 장'으로 바뀌내는 문화다양성의 실현과 실천의 공간임.

2. 정책적 합의

가. 여성공동체들의 특징

- 여성공동체들은 내부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자율적이고, 친밀성에 기반한 ‘존중’, ‘이해’, ‘지지와 지원’이라는 문화다양성을 실천 및 실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실천주체’로 존재하고 있음.
- 여성공동체들은 또한 가부장제로부터의 차별과 억압을, 함께하는 여성들로부터 위로받고 극복할 힘을 부여받으면서 가부장제적 위계구조를 해체할 대안의 권력, ‘함께하는 권력’을 형성하고 있음.
- 여성공동체들의 특성은 이들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 온 매개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임. 따라서 여성공동체들이 자주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이러한 매개조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여성공동체는 여성들의 문화형성의 공간, 권력형성의 공간, 저항의 공간임.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공동체들은 중첩되는 소수자성을 가진 집단이지만, 상호지지와 지원, 친밀감을 통해 저항의 권력을 구성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나. 여성주의 관점으로 본 문화다양성 저해요인: 권력구조의 가부장제

- 가부장제는 가장인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수직적 권력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가 전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실현되는 제도로, 수장을 중심으로 수직적 권력관계를 토대로 함. 위계구조는 다양성, 차이들의 존중이 아니라 배제와 소외를 수반함. 문화다양성이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고 철학이라면 이러한 위계구조를 분석해야 함.

-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공동체들은 여성 내에서도 소수자들이라는 이중의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이들의 존재가 비가시화 되고 있음. 비가시화의 요인은 문화정책이 주류중심 정책이기 때문임. 여성들은 문화생산자이기 보다는 문화소비자로서의 위치가 부각되고 있음.
- 억압과 차별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이기도 함. 여성주의는 지배와 통제의 권력개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권력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함. ‘더불어 행사하는 권력(power with)’이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권력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는 공동의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조직된 사람들에게 수반되는 집단적인 권력, 임파워먼트로 여성공동체의 지속요인이기도 함.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둘 다 사회적 권력구조 안에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위치를 가짐.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권력구조에 집단저항주체로 형성이 되지 못한 집단이고, 소수자는 집단저항주체로 구성이 된 집단을 의미함.
-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위계구조는 가부장제, 남성중심 구조임. 여성들은 가부장제 권력에 저항하여 왔다는 점에서 소수자집단임. 가부장제는 문화다양성실현의 강력한 장애임. 남성은 ‘일반’, ‘일상’을 대표함. 남성 중에 소수자는 존재하지만, 남성 자체가 소수자는 아님.

다. 문화·공동체와 소수자 주체성

- 본 연구를 통해 문화와 공동체는 소수자들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문화는 부담 없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동체는 임파워먼트를 통해 저항의 주체로 구성되도록 함. 문화는 공동체들의 연대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유효함.
- 공동체 참여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경험, 상호간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구성원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목적이 재구성됨.

- 문화다양성의 실현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화다양성 실천의 주체가 될 때 가능함. 공동체는 이러한 문화다양성 실천의 주체가 형성, 성장하는 데서 주요한 경로가 됨.
- 소수자성이 ‘저항주체’를 내포하고 있다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핵심은 차별과 억압의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소수자’에 초점을 두어야 함.

라. 여성공동체 연구의 의미

-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인 인천시 부평구라는 지역적 기반위에서 여성 이주민, 여성 장애인, 여성 한부모, 여성 노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 공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고민하는 여성학부모들, 여성 문예팀이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을 가진 여성공동체를 발굴하였다는 의미를 가짐.
- 또한 본 연구는 중첩된 소수자성을 가진 여성공동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심리적, 조직적, 사회적 임파워먼트라는 새로운 권력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여성공동체들이 당면한 문제,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도출한 것도 의미가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사연구사업’의 부족현상을 보완하는 문화다양성정책의 심화라는 측면, 문화다양성 주체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를 시작으로 여성주의 관점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함.
- 여성들의 공동체 활동은 부평여성현황에서 나타나는 우울감과 낮은 행복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낸 본 연구는 부평구 및 인천시 여성정책에도 함의하는 바가 큼.

마. 여성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 지속적인 여성공동체 발굴을 위한 홍보, 참여채널의 다각화가 필요함. 특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평구 무지개다리사업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민센터, 여성플뿌리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공동체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함.
- 이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부평구 여성공동체 축제’같은 형태로 부평 지역주민(다수자, 정주민)과 여성공동체들(소수자)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될 수 있음.
- 여성공동체들은 운영과 지속을 위한 행정적, 인적, 공간적 지원을 필요로 함. 유희 공간 혹은 활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특히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방안 모색도 필요함.
- 발굴된 여성공동체들 간, 기존의 여성공동체와 이들 간, 다양한 공동체와 이들 간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야 함. 정기적인 집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체 상호간 교류와 사업의 환류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평구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및 공동체 지원정책이 논의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안권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여성공동체들의 특성에 기반 한 여성소수자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장애인공동체, 한부모공동체, 노동자공동체, 이주여성공동체 등은 사회적 ‘편견’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음. 이들을 위한 인식개선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제기됨.
- 여성공동체들이 문화생산 및 소비의 주체로 형성되기 위한 ‘창작문화 창달’의 적극적 참여자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도 가능함. 여성소수자공동

체에 대한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경험과 일상이 어떻게 구성 및 재구성되는지, 이들이 겪는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개인, 조직, 사회적 차원에서 담담히 서술되고 있음. 이러한 여성공동체들의 이야기를 ‘여성주의 연극’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다고 보임.

3. 정책 제언

가. 제언 배경

- 부평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임. 중간 매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리의 역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문화적 자본과 능력을 가진 재단의 역할이 필요한 지를 설계하여야 함을 의미함. 연구 결과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의견으로 피력됨. 여기서 공간이라 함은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place) 일뿐 아니라 사이버공간, 의식화와 조직화의 공간 등을 포괄함.
- 공동체 활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공간 확보의 문제는 공연이나 전시 공간(기회)의 부족, 홍보의 부족, 공연을 위한 연습공간의 부족, 공간운영비의 부담 등 다양하게 나타남. 특히 문화자본이 빈약한 소수자 공동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공간의 문제라면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나. 제언내용

- 1) 지역밀착형 문화 공간·장소 확보 : 부평 공공기관 유휴 공간 이용자 실태조사
 - 여성공동체들에게서 공통의 요구로 등장하는 공간(장소)에 대한 개방 혹은 공유의 요구는 부평지역만의 것만은 아님. 특히 여성공동체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때 운영시간, 비용, 관리인력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자발적 주체

들에 의한 지역 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공적공간에 대한 개방의 요구는 더 커질 것임.

- 부평지역의 공공시설들이 여성 및 소수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시점임. 지역 거점으로서 작은 문화공간들이 확보된다면 소수자 공동체 뿐 아니라 중첩적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다양성 확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이를 위해서 현재 부평지역의 공공기관 내 유휴 공간들에 대한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밀착성과 역할, 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례) 학습편의점²²⁾

미추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편의점은 평생학습센터의 모델임. 구에서 공가를 임대,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평생학습센터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없애고 참여의 기회와 환경을 개선한 방식임. 미추홀 구 전역의 북 카페나 아파트 단지 내 관리 동을 활용하며 지역주민을 관리자로 임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민 참여형 모델임. 현재 4곳 운영 중.

2) 여성공동체의 가시화와 교류, 소통을 위한 온라인 공간 확보: 사이버 문화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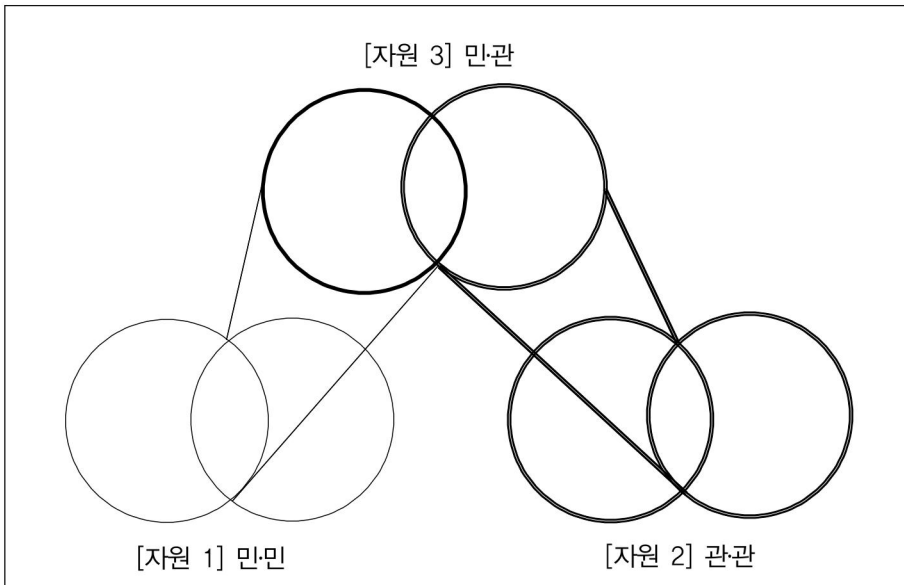
- 여성공동체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자신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홍보비 부담이나 홍보 방법, 또는 기회나 기술의 부족으로 더 많은 정보와 접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생산의 주체이기도 한 공동체의 특성상 이들의 자원을 선순환 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22) '학습편의점을 아시나요?

http://m.incheonin.com/news/news_view.php?sq=27007&m_no=1&sec=8

- 부평구문화재단의 온라인 공간, 홈페이지 등에 가칭 ‘문화 마켓’ 페이지를 생성하여 지역 공동체들의 고유의 생산 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전시 및 홍보하고 다른 공동체들의 프로그램 정보도 획득하며 상호 교류할 뿐 아니라, 상호교육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촘촘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 마켓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주민공동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 공동체를 발굴하여 문화다양성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
- 3)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저항권력 거점(소수자 의식화, 조직화의 장)으로서의 공간 확보: ‘문화거버넌스 구성’
- 소수자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내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어야 함(인천시 남구, 2017).
 - 거버넌스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짐. 민과 관의 협업, 관과 관의 협업, 그리고 민과 민의 협업이 있음. 우선 민과 관의 협업을 위해 민과 민의 네트워크, 협업의 환경을 조성하고 부평구문화재단과 타 기관, 즉 관과 관의 협업을 통해 정책집행의 조건들을 만들어 내야 함. 이 3차원적인 협업이 거버넌스의 핵심임.

【그림 5-1】 거버넌스의 3차원 모형



출처 : 구로구, 2017

- 여성공동체 사례 연구 결과 문화자본, 정보 등 자원의 분배가 불평등한 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중첩적 차별과 편견의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공동체들이 문화다양성 실현의 담지자이자 주체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임. 전문가나 정보에 대한 기득권을 갖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행정구조가 문화다양성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나타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당사자들과 정책기관이 만나는 장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부평구문화재단은 여성공동체와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집담회 등의 ‘민·관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 무지개다리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 다음 해의 사업 기획으로 환류 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참고문헌

- 구로구, 2017,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 김면, 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7-05,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김영정, 2018, “마을공동체와 여성-공공성과 젠더화된 돌봄의 딜레마”, 『기억과 전
망』 통권38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노명우·최혜자, 2013,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권리”,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2013-3호. 부천문화재단
- 류정아, 2017, “문화다양성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World & Cities vol.11
- 마이틀 샌텔, 2012, 『정의의 한계』, 멜론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 _____, 2017,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 부평구, 2017a, 『부평구 2017 성인지 통계』
- _____, 2017b, 『제29회 부평구 기본통계』
- _____, 2018a, 『부평구 2018 성인지 통계』
- _____, 2018b, 『부평구 2018년 주요업무시행계획』
- _____, 2018c, 『2018 부평구 가계부』
- 부평구문화재단, 2016, 『2018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계획서』
- _____, 2017, 『2017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성정현, 2007, “이혼여성의 공동체 구축을 통해 본 대응전략과 사회복지실천의 함의”, 『사회복지연구』 제32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인천여성의전화, 2009, 『아이다마을백서』
- 오미영·이진영, 2006,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여성연구논집』 제17집,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 이 완, 2017,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다양성 활동”, 『2017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인숙, 2012, “한부모여성의 공동체 참여요인과 사회자본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이혜정, 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한국여성철학』 제14권, 한국여성철학회
- 인천광역시, 2017, 『인천시 2017 통계연보』
- 인천광역시 남구, 2018.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전회경,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페미니즘연구』 제14권 1호 75-112.
- 조연숙,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젠더”,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만들기 자료집』, 서울여성가족재단
- 최성희, 2014, “서울 백사마을 여성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서울민속학 창간호』, 209~238, 서울민속학회
- 최희영·이희정, 2014,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9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 행정자치부·부평구, 2016, 『부평구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설문조사』
- 희망제작소, 2010, 『지방자치와 지역혁신을 위한 상상력』

PAGE, Scott E. 2008, 『The Difference』, Princeton Univ Pr

부평구 홈페이지

부평구 풀뿌리 여성센터 홈페이지

연구 계획 수립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황유경 본부장
총괄	김유정 기획조정팀장
정책담당	노수진 기획조정팀

연구 수행

인천여성의전화

책임연구	박인혜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평등정책연구소장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공동연구	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	신영옥 인천여성의전화 이사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부평구문화재단 연구 2018-02

부평 여성공동체 사례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인	이영훈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부평아트센터 내 bpcf.or.kr
연구수행	인천여성의전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5 womanline.or.k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 연구는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제하거나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평등한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